일간공업신문사 쿠리시타 : 앞서 폐회인사를 해 주셨는데요. 이틀 동안의 경제인회의의 성과,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있는 가운데 이 회의의 의미 부여를 어떻게 두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김윤 회장 :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와주셔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양국관계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금년 5월에 계획했던 회의가 지연이 돼서 어제하고 오늘 열리게 됐습니다.

양국 경제인의 경제협력의 역사는 지금부터 약 60여 년 동안 아주 잘돼왔습니다. 양국관계가 그렇게 그동안 항상 편안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양국재계의 협력은 아주 탄탄하게 해서 양국 경제발전에 많이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위안부재단이 해체가 되고, 또 징용공 문제가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난 뒤에 급격히 냉각이 되었습니다. 한일관계는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아주 탄탄하게 해왔는데 최근에 이 문제에 의해서는 약간 좀 소원해진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를 통해서 이틀간 머리를 맞대고 솔직한 의견교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여러분이 공동성명에서 보셨다시피 정치 외교는 좀 긴장감이 있더라도 민간교류, 특히 경제교류는 활발히 지속적으로 해서 특히 글로벌 마켓에서의 좋은 기회를 우리가 꼭 지속해야겠다라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웃나라인 한국과 일본이 지역교류나 학생교류 또 문화교류 등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를 하자,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양국 경제인들의 활동이 앞으로 양국 관계 개선에 기여될 수 있도록 희망을 합니다.

사사키 회장 : 한일관계가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지금까지 유지해온 매우 양호했던 경제관계가 여기서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제51회 경제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이 참가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더 많은 참가자 3백명 이상의 참가자분들이 있으셨습니다. 지금까지 50년간 축적해왔던 신뢰를 바탕으로 비록 어려운 시기입니다마는 서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고 진지한 태도로 토의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매우 기뻤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번 회의를 통해서 양국경제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한일관계를 개선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이 어려운 과제 앞에서 예를 들면 3국에 있어서의 경제연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또 일본의 일손 부족, 한국의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기업이 한국대학생을 더 채용하는 것을 확대해야 한다는 등 매우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의견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는 점이 매우 뜻 깊은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중심축인 경제, 문화 인적교류를 앞으로 어떤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속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이번 공동성명안에 담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인회의는 한일관계 개선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회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답변은 이상입니다.

사회 : 양국 단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UPI 뉴스 오다인 : 사사키 미끼오 일한경제협회 회

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일본전자정보기술협회, 일본화학공업협회에서 한국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포터레지스트와 폴리미드 대한 국수출이 차질없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본 재계에서도 같은 생각인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사키 회장 : 일단 저희로서는 수출규제 강화부분인데요. 일본기업 입장에게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 대한 수출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기업 입장에서는 한국고객이 주문을 해 주시면 당연히 그 계약조건에 따라서 납기대로 납품을 하기 위해서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고객분들에게 절대로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조금 이 조치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는 한으로는 이번에는 이 수출과 관련해서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허가가 계속 나오고 수출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 :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이라고 할까요? 조금 전에 일본 언론, 유피아이지만 한국분이 질문하셨으니까.

요미우리 신문 요시다 : 양 단장님께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서 정치와 경제 분리는 이제 불가능하다 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성명안에는 이러한 교류를 더욱더 강하게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경제계 교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라고 돼 있고, 이것이 정치세계에도 우리가 어떠한 그런 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경제교류를 강화한다는 인식을 확인했다는 것 자체를 성과로 보시는 건가요?

사회 : 이 부분은 김 윤 단장님께서 먼저 답을 주시죠?

김윤 회장 : 아시다시피 지금 양국 정부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은 투트랙이다 라고 해서 정치 외교와 경제문제를 별도로 생각하자라는 것이고, 일본은 조금 의견이 다르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 경제인이 정치 외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하지만 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 사회에 이바지하고 또 양국의 경제인들이 협력을 하면서 윈윈 기회를 만든다면 그런 행동자체가 양국관계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사사키 회장 : 이 회의내용에 대해서 일본정부에 설명하고 양국이 지금까지 구축해온 경제관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사회 :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하고 다음 질문자를 지명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균형감각을 말씀드렸는데 한국기자님이 계시면 손들어주시겠어요?

한겨레 신문 최하연 : 두 단장님께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인데요 사실상 하나이기도 합니다. 일단 오늘 채택하신 성명을 양국정부에 대화를 요구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지 이걸 여쭙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대화가 잘 진행되지 않는 걸 지켜보면 일본정부에서 사실 한국정부와의 대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게 아마 한국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인식일 것 같은데, 한국과 비지니스를 하시는 일본기업의 대표자들로서 일본정부에 한국정부와 대화를 할 것을 요청할 의사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사키 회장 : 물론 당연히 저희는 이렇게 서로 양국이 외면한 상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서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로 양국에 서로 공표가 된 내용도 있는가 하면 공표되지 않은 내용도 분

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제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서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경제를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양국 정부, 그리고 저희는 일본정부 관련부서에 충분히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김윤 회장 : 물론 양국정부가, 양국관계가 좋지 않으면 경제에도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경제인들은 양국정부가 어떻게든지 관계개선을 해서 여러 가지 협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다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양국정부가 이렇게 대립하는 데는 각자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인이 정치 외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 조금씩 이해를 해가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사회 : 그럼 이번에 일본기자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 부탁드립니다.

NHK 이케가와 : 양 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일 최악의 관계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한일의 경제 미래를 어떻게 내다보고 계시는지요? 또 하나의 질문은 이번 회의와 관련해서 어떤 인상적인 장면이라든지 인상적인 발언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도 함께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 회장 : 양국 경제의 미래는 뭐 제가 경제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는 없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글로벌 경제가 상당히 요동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행정도 많이 변하고 있고요. 이런 때에 이웃에 있는 양국, 그다음에 이 양국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원도 없고 그다음에 국토가 넓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우수한 인력들이 있고 이런 굉장히 비슷한 환경에 처한 나라가 협력을 할 적에, 그렇지만 그 안에서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험난한 글로벌 마켓에서 생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문제도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고령화랄까 또 여러 가지 인구가 감소하는 이런 문제, 이런 비슷한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경험을 쉐어해 가면서 협력을 하면 앞으로 미래 경제전망은 밝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봅니다.

사사키 회장 : 지금 김 윤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계에서는 양자간의 교역만으로는 하기 어려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를 시야에 놓고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서플라이 체인은 이미 글로벌화 전세계로 펼쳐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일관계문제뿐만 아니라 중국, 아시아, 중동 또 미중간의 무역분쟁 등 이러한 부분에서 양국간은 큰 영향을 받고 있고, 전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즉, 한일관계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 전망을 논의하라고 한다면 상당히 말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전망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는 전환기를 맞이 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를 주시해가면서 경제활동을 영위해나가고 싶습니다.

김윤 회장 : 아까 인상적인 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번 회의를 통해서 가장 많이 회의 참가자들이 하셨던 말씀이 '한국과 일본은 이웃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웃하고 조금 트러블이 있다고 해서 이사를 갈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제일 많았습니다.

사회 : 시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마는 일본 매스컴에

서 세분이 질문하셨고 한국에서는 두분이 하셨습니다. 한국 언론관계자로부터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받고 기자회견은 마감을 하고자 합니다.

사사키 회장 : 아까 인상적이었던 발언이 뭐였는지 질문을 하셨는데, 모든 분들이 대단히 훌륭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저희에게 축사를 말씀해 주셨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님이 발표를 하시기 전에 저희들끼리 뵐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 활동에 대해서 대단히 높은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축사 중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경제, 문화, 인적교류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특히 제3국에서의 협업에 대해서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길 바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즉 정부 측에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원과 지지를 해 주시는 발언을 해 주셔서 기뻤습니다.

사회 : 한국의 언론께서 아까 두 분의 여성이 계셨기 때문에 차별이 없도록 손을 들어 주신 남성 언론기자께 기회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조선일보 김강한 : 한국에 반일감정이 있어서, 일본 불매운동, 일본 여행 보이콧 운동이 있는데 이게 한국, 일본 양국에 크고 작은 경제적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회의에서 혹시 논의하신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사키 회장 : 회의 주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초점을 맞춰서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개회식 인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한국에 진출해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한국관광객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 1~2개월간 상당히 급감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이거 때문에 각 지자체와 그와 관련된 관광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다른 분을 통해서 들은 바도 있고 보도된 것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사실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가장 큰 데미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작년까지 일본을 방문했던 한국인 관광객수가 750만명에 달합니다. 아마 그때 일본을 오셨던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일본을 즐기고 가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사회 : 김 윤 회장님, 혹시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김윤 회장 : 경제인들의 경제활동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법을 지키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또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고 그래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게 경제인의 임무이듯이 또 소비자의 권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물품을 좋은 가격에 또 좋은 품질의 물품을 사서 생활을 영위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불매운동'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들도 넓은 아량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은 좋은 가격에 사서 생활을 영위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 :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냈으면 합니다. 양 단장님께 다시 한 번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부탁드리고 끝내고자 합니다. 오늘 많이 모여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화보 •



•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화보 •




















•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화보 •





















•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화보 •





















•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화보 •























[부록 1]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주요 언론 기사 모음

(사)한일경제협회

東亞日報
2019년 09월 25일 (수)
02면 종합

한자리 모인 한일 재계 "갈등 장기화땐 경제전반 악영향"

한일경제인회의… 양국 300여명 참석
"불매운동, 日기업에 그림자 드리워"
"재계가 해빙 분위기 조성" 뜻모아



손 맞잡은 한일 재계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고가 노부유키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는 불매운동은 일본 기업들의 경제 활동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상황이라 크게 우려된다."(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한일 관계 악화로 한 차례 연기됐던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가 24일 개최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양국 관계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일 경제계가 먼저 '해빙'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국을 대표하는 경제계 수장뿐만 아니라 정부 인사도 참석해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꽉 막힌 양국 관계에 모처럼 숨통이 트이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의 공동 주관으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양국 재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국교정상화 4년 뒤인 1969년에 처음 열린 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속돼 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일 양국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세계 시장에서 선의로 경쟁하면서 최대한 협력해 공존 공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회사를 한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은 "두 나라 기업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 제3국에서 총 95건, 280억 달러에 이르는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양국이 제3국에서 협업하면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제3국의 발전에 기여해 국제적 위상도 올라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인사도 참석해 최근 악화된 양국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양국은 상호 분업하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성공적인 교류를 해왔다"며 "최근 부품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의는 양국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한국 정부도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나가미네 대사도 "민간 차원의 한일 관계 토대가 되는 경제와 문화 교류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양국 기업들 간의 협력이 줄어든다면 투자와 고용, 기업 수익성 감소뿐만 아니라 양국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25일까지 진행된다. 25일에는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과 하리 스스무 일본 시즈오카현립대 교수가 각각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공식 행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단장의 공동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22.3 X 21.4 cm

朝鮮日報
2019년 09월 25일 (수)
10면 종합



이태경 기자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고가 노부유키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총리도 장관도 불참한 韓日경제인회의

日 수출규제 등으로 갈등 고조
5월 개최하려다가 어제 개막
원론적인 수준 논의만 오가

"한·일 관계가 어려운 시기에 열리는 회의이니만큼 우리 경제인들의 사명감과 각오가 더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경제와 정치·외교는 자동차의 두 바퀴입니다. 정치·외교 관계 복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사사키 미키오 일 ·한경제협회 회장)

한국과 일본이 외교·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기업인이 공동 주최한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가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개최돼 온 한·일 민관 합동 회의다. 지난 5월 열릴 계획이었지만 한·일 관계 악화로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날 행사는 200여명의 한국 기업인과 100여명의 일본 기업인이 참석했지만, 우리 정부 측 인사로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지난해 도쿄에서 열린 50회 회의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해 "한·일 관계가 어려울 때에도 경제인 교류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지속됐다"며 축사했다.

유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축사에서 "시장 개방과 자유로운 무역은 일본이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며 자유무역 혜택으로 성장한 한·일 양국이 그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한·일 주요 기업을 이끄는 경제인들의 모임이 사상 최악의 한·일 관계를 개선시킬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왔지만, 실제로는 "한·일 양국은 감정의 응어리를 뛰어넘어 역내 질서에 관한 현실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수준의 원론적 논의만 오갔다. 고가 노부유키 일·한경제협회 부회장도 "이럴 때 경제인들끼리 만나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대화를 하는 자리가 갖는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은진 기자

11.3 X 21.0 cm

중앙일보
2019년 09월 25일 (수)
B04면 경제

한일 재계 300명 "기업교류는 계속"

서울서 51회 한일경제인회의
양국 갈등 속 무거운 분위기 진행
유명희 본부장, 일본대사도 참석



24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과 사사키 미키오(佐佐木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특별고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회장, 사사키 미키오 회장,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연합뉴스]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데 대단히 마음이 아팠다. 양국 간 정치외교의 복구가 필요하다."(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한일 간 갈등과 관계 경색이 너무 안타깝다. 기업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이념이 아닌 현실을 보고 있다. 조속히 양국 관계가 복원되길 바란다"(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24일 서울에서 한국과 일본의 재계 인사 300여 명이 다소 어두운 표정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열었다. 양국 정부 간 정치·외교 갈등이 교역으로 확대되는 데 경제인이 일제히 우려를 표하면서 행사는 다소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재계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온 일본 기업인은 '정치·외교와 별개로 기업 간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김윤 한일경제인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양국은 숙명적 이웃으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경쟁과 협력을 통해 공존공영해야 한다"며 "공통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에 소통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손경식 경총 회장(CJ 회장)도 "한일 간 무역분쟁은 (기업 간)오랜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국제공급망에 예측 불가능성을 초래해 양국 기업에 불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경제적 호혜 관계뿐만 아니라 안보 협력의 끈을 튼튼히 유지할 때 서로의 번영과 안정이 담보될 수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측 기업인도 현재 상황을 "출구가 안 보이는", "폭넓은 피해", "(기업에) 절실한 문제" 등으로 표현하며 민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특별고문은 "한일 양국의 정치·외교 관계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자치단체·문화·스포츠 간 교류도 한일은 긴장의 연속"이라고 진단했다. 미키오 회장은 "불매운동은 일본 기업뿐 아니라 한국 기업, 소비자, 한국에서 일본계 기업에 일하는 근로자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경제와 정치·외교는 자동차의 두 바퀴라는 점에서 정치외교 관계의 복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낀다"고 말했다. 미키오 회장은 아세안 국가 등 제3국에 한일 기업이 공동 투자를 하고 청소년 교류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경제인은 50년 동안 구축한 관계를 결코 무너뜨리는 일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엔 한·일 정부를 대표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도 참석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한일관계가 어렵더라도 양국 교류와 협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스마사 대사는 "최근 불매운동이 일본기업 경제활동 그림자 드리우는 상황이어서 크게 우려한다"며"이번 회의가 양국 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1969년부터 매년 열렸다. 당초 지난 5월 국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행사는 일한경제협회의 요청으로 연기됐다가 지난 7월말에서야 일정을 다시 잡았다. 한국 재계에선 류진 풍산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사장, 정탁 포스코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측에선 도요타자동차·아소시멘트·스미모토(상사·화학)·오오가키정공·호텔오쿠라 등에서 참석했다.

박수련·임성빈 기자
park.suryon@joongang.co.kr

16.9 X 23.3 cm

한국일보
2019년 09월 25일 (수)
22면 경제

한일 재계 "경제협력 계속 돼야"

서울서 한일경제인회의 열려
日대사 "한국 불매운동 우려
징용배상 판결에 경색" 찬물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로 촉발된 한일 '경제 전쟁' 속에서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만나 "두 나라의 경제협력은 계속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두 나라의 재계 인사들이 만나 정부에 관계회복을 요구한 건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이후 처음이다.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의 한일협력'을 주제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한 한국과 일본 기업인들은 한일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막사에서 "한일 간 경제는 부품과 소재, 장비 제품들이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선의로 경쟁하고 최대한 효율을 내기 위해 공존·공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한일 간 갈등 심화는 상호 손실을 가져다줄 뿐"이라며 "다른 나라에만 이익을 주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사키 미키오(佐佐木幹夫) 일한경제협회장 역시 "한일 관계에서 경제와 정치·외교는 자동차의 두 바퀴와 같다"며 "자동차가 잘 굴러가려면 양국 간 정치·외교 관계의 복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의 호혜적인 경제관계의 유지·발전 방안으로 △한일 양국의 제3국 협업 △인재·문화교류 △차세대 네트워크·지역교류 활성화 △올림픽 성공을 위한 협력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양국 정부 관계자의 생각은 여전히 차이가 컸다. 축사를 맡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양국 간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제한되고 흔들리는 현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국과 일본 간 적극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 양국이 직면한 과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한국의 불매운동이 일본 기업의 경제활동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것에 우려한다"며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 근로자 배상과 관련한 한국 대법원 판결이 양국 경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일 관계 경색의 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강조하며 우여곡절 끝에 열린 회의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 첫 회의 이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매년 열린 민관합동회의다. 올해는 당초 지난 5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양국 관계 악화로 일정이 미뤄지면서 50년 만에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다. 이날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회의엔 양국 재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변태섭 기자**

11.8 X 17.2 cm

서울신문
2019년 09월 25일 (수)
24면 경제

손경식 경총 회장, 日경제인 앞에서 한일 경제협력 강조

서울서 개막 한일경제인회의 기조연설
"日 수출규제 계속되면 한일 경제 악화"



24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참석자들이 행사 시작에 앞서 손을 겹쳐 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고가 노부유키 노무라증권 회장.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은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틀 동안 열리는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개회식에서 "동북아 평화와 번영, 그리고 국제분업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한일 간 우호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한일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양국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가치사슬)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함으로써 세계 경제 견인에 기여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일경제인회의 올해 주제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 한일 협력'으로 손 회장과 고가 노부유키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이 기조연설을 맡았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가 축사를 했다. 재계에선 한일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오석송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에선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모리야마 도모유키 한국미쓰이물산 사장 등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일본) 수출관리제도의 작동으로 양국 기업들 간 협력이 줄어든다면 투자와 고용, 기업 수익성 감소뿐 아니라 양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문화, 체육, 예술, 인적 분야 교류를 확대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법과 정치로 풀기 어려운 문제도 한일 경제인들의 실용성, 포용력, 합리성으로 풀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흥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0 X 14.9 cm

국민일보
2019년 09월 25일 (수)
18면 경제



한국과 일본 경제인·외교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고가 노부유키 노무라증권 회장. 최현규 기자

"한·일 정치외교는 차 바퀴 같아… 복구 절실"
"실용성·포용력·합리성으로 난제 풀어가야"

서울서 51회 한일경제인회의
양국 경제협력 악화에 깊은 우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한·일 경제협력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한 일본 경제인들이 깊은 우려감을 드러냈다.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은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의 한·일 협력'을 주제로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때까지 상호호혜적인, 양호했던 양국 경제관계가 위기에 처해 있는 걸 깊이 우려한다"며 "양국 간 경제, 정치외교는 자동차 바퀴와 같기 때문에 정치외교적 관계 복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세대를 위해 양국이 경제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책임"이라며 "한·일 양국이 현재 정치 상태에서 탈피해 양국 국민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에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사사키 회장은 양국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3국에서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 양국이 기존 자원 개발, 인프라 수출에 덧붙여 아시아 국가에서 스마트시티 등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프로젝트나 분업을 통한 협력을 해야 한다"며 "국경이 무너지고 있는 기업활동 관점에서 한·일 경제협력 방법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장도 개회사에서 "경제는 생산, 분배, 소비로 이뤄진 유기체이며 한·일 간 수평분업은 부품, 소재 장비 제품으로 연결돼 있다"며 "양국 기업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며, 이념이 아닌 현실을 봐야 한다. 양국은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서 더 깊이 이해하고 선의로 경쟁하며 최대 협력을 통해 공존·공영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경제인들 간 협력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법, 정치외교로 풀기 어려운 문제도 한·일 경제인들의 실용성과 포용력, 합리성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12.5 X 25.0 cm

세계일보
2019년 09월 25일 (수)
18면 경제

마주 앉은 한·일 재계 "양국 관계 복원 절실"

'51회 韓·日 경제인 회의' 개막

"협력 통해 공존해야 할 상대" 공감

오늘 공동성명에 관련 내용 담길 듯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한국과 일본이 외교·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양국 재계 인사들이 만나 관계 복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24일 서울에서 한·일 양국 재계가 공동 주최한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 300여명의 재계인사들이 참석, 한일 갈등이 첨예한 현 상황을 우려하며 경제를 비롯한 정치·외교 전반에서 관계 복원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한·일 양국은 숙명적인 이웃으로서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세계 시장에서 선의의 경쟁과 최대한의 협력을 통해 공존·공영해야만 한다"며 "소통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佐佐木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도 "경제와 정치·외교는 자동차의 두 바퀴와 같은 것으로, 양국 간 정치·외교관계 복원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사키 회장은 양국의 호혜적인 경제 관계 유지·발전방안으로 △한·일 양국의 제3국 협업 △인재·문화 교류 △차세대 네트워크·지역교류 활성화 △올림픽 성공 협력 등을 제언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 관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간 자발적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한·일관계 개선을 향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도 양국 간 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적 노력 등을 기울여 나갈 것이고 신뢰에 기초한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틀째 행사에서는 공동성명 채택과 공동기자회견이 예정됐다. 양국 재계가 최근 현안에 대해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일경제인회의는 국교 정상화 4년 뒤인 1969년 양국 경제협력 증진을 취지로 시작한 이래로 양국을 오가며 열린 대표적인 민간 중심 경제협력 행사다.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았으며, 1991년 걸프전과 2011년 동일본대지진, 2017년 대선 때만 일정이 연기됐다. 올해 행사는 당초 5월 13~15일 국내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양국 관계 악화 등의 여파로 주최 측이 지난 3월에 한차례 연기했다.

17.2 X 11.9 cm

아시아투데이
2019년 09월 25일 (수)
10면 경제

한·일갈등 속… "제3국서 협력" 경제인 한뜻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사사키 회장 "양국 공동 프로젝트 투자액 250억달러 달해" 협업 제안
유명희 본부장 "만남·대화 계속돼야"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양국 경제인들이 모처럼 만나 갈등 해소와 협업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의 한일협력'을 주제로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25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날 모인 경제인들은 제3국에서 협력과 문화·예술 교류 등을 통해 양국 관계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자고 주장했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일관계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경제인들의 사명감과 각오가 예년과 달리 특별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경색된 양국 관계에 대해 꼬집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이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제공=삼양사

김 회장은 그러면서 "양국은 숙명적 이웃으로서 최대한의 협력을 통해 공존공영해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와 구인난·취업난 등 공통 해결과제가 산적하기에 소통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단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은 호혜적인 경제관계의 유지·발전방안으로 제3국에서의 협업을 제안했다.

사사키 회장은 "제3국에서 스마트시티 등 도시문제 해결과 프로젝트 분업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면서 "과거 10년 한·일 양국이 제3국에 공통 진출한 프로젝트는 95건으로 작년 기준 공개돼 있는 프로젝트 투자금액만 280억 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화답하듯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양국은 이미 제3국 에너지 인프라 등 협력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며 "일본의 프로젝트 발굴 및 자금조달 능력과 한국 기업의 기술력 시너지를 일으켜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오늘의 만남과 대화 노력이 쌓여간다면 앞으로 양국의 관계는 비온뒤 굳은땅처럼 단단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 첫 회의 개최 이래 지금껏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개최돼 온 한·일 간 대표적인 민관합동회의다. 올해는 지난 5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정부 간 관계 악화로 미뤄졌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김 회장,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등 203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회장,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고가 노부유키 부회장, 아소 유타카 부회장 등 102명이 참석했다.

한편, 회의 둘째날인 25일에는 염재호 SK㈜ 이사회 의장이 좌장을 맡아 '한일관계의 새로운 도약'에 대해 토론한다. 이어 공동성명안을 심의한 경제인들은 양국 공통과제의 실현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후 양국 공동성명 채택, 폐회사를 끝으로 행사가 종료된다.

/김윤주 기자 joo0416@

25.5 X 14.6 cm

『이투데이
2019년 09월 25일 (수)
002면 종합

손경식 경총 회장 "한일 갈등, 양국 기업에 심각한 악영향"

한일경제인회의 기조연설… "제3국에 이익… 안보도 타격 전망"

"한일 무역분쟁은 국제분업 선순환 구조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양국 기업에 불이익을 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한일 갈등이 양국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은 지난달 한국을 수출 우대국가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이에 맞서 18일부터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손 회장은 "(한일 갈등으로) 한국 기업은 일본으로부터의 부품, 소재 수입에 있어 불안정이 발생해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빚고 일본 기업들은 시장과 수익성에 손실을 보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일본 기업들은 수출시장이 축소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술개발 비용을 포함한 생산비용이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한국과 일본은 세계적으로 비중 있는 무역국가일 뿐만 아니라, 상호 무역의존도가 높다"며 "양국은 글로벌 밸류체인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해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데 이바지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갈등은 안보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손 회장은 우려했다.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손경식(왼쪽 두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유명희(왼쪽 세 번째) 통상교섭본부장, 사사키 미키오(가운데) 일한경제협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어 남북 간 힘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은 기술 패권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일수록 양국 갈등 심화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역내 제3국에만 이익을 준다"며 "한일은 경제적 호혜 관계뿐만 아니라 안보 협력의 끈을 튼튼히 유지할 때 서로의 번영과 안정이 담보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한일 갈등이 있음에도) 양국 경제인들의 우호 친선관계가 더욱 공고히 이뤄져야 한다"며 "법, 정치, 외교로 풀기 어려운 문제도 한일 경제인들의 실용성과 포용력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양국의 문화, 체육 등 인적 분야 교류의 지속·확대, 그리고 이를 통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원만한 해결 방안 모색을 제시했다.

한편, 한일경제인회의는 국교 정상화 4년 뒤인 1969년 양국 경제협력 증진을 취지로 시작한 이래로 한 해도 거르지 않으며 양국을 오가며 열린 대표적인 민간 중심 경제협력 행사다. 올해 행사는 당초 5월 13~15일 국내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양국 관계 악화 여파로 연기됐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34.6 X 12.1 cm

매일경제
2019년 09월 25일 (수)
02면 종합

"비 온뒤 땅 굳어" … 다시 협력 강조한 韓日재계

서울서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 양국 300명 참석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참석
"국경초월해 공동 번영 기대"
김윤 회장 레이와 연호 언급
"새로운 50년 관계 설정할때"
나가미네 일본대사는 엇박자
"韓불매운동, 日경제에 그림자"

한국·일본 재계 주요 인사 300여 명이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비롯된 양국 경제갈등이 본격화한 올해 7월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앉았다. 양국 경제인들은 24일 개막한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숙명적 이웃관계'를 재확인하며 "공존공영을 위한 새로운 50년을 설계하자"고 다짐했다. 한일·일한경제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회의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4~25일 이틀간 진행된다. 한국에서는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을 단장으로 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 203명이 참석했다. 일본은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특별고문)을 단장으로 고가 노부유키 노무라홀딩스 회장, 오카 모토유키 스미토모상사 특별고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 등 102명이 참석했다. 이 밖에 양국 정부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특명전권대사가 내빈으로 초청됐다.

김윤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일은 숙명적 이웃으로서 최대한의 협력을 통해 공존공영해야 한다"면서 "저출산·고령화, 구인난과 취업난 같은 공통 해결과제가 산적해 소통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우선 강조했다. 그는 "최대한의 협력"을 거듭 언급하면서 "한일 간 수평분업은 부품, 소재, 장비, 제품으로 연결돼 있다. 한일 경제인은 이런 인식을 토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협력 창구로 활약할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또 올해 개원한 일본의 새 연호 '레이와(令和)'를 거명하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새로운 (양국 우호증진의) 50년의 설계가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얼어붙은 정치외교 관계를 민간 경제 협력으로 녹이자"는 한국 측 메시지에 일본은 과감한 미래 협력 비전으로 화답했다. 사사키 회장은 "한일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서 새로 수요가 발생하는 스마트시티처럼 제3국에서 분업을 통한 협력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 양국이 제3국에서 진행하는 협업 프로젝트는 95건인데 이 중 투자금액이 공개된 5건만 봐도 액수가 280억달러에 이른다"면서 "한일은 제3국 내 협업을 새 경제협력 방식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손 회장은 "최근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이 군사적 경쟁, 외교적 경쟁을 넘어서서 무역·기술패권경쟁으로 치달으며 동북아시아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적 전환기에 한일 관계마저 경색되면서 역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다. 한일 양국은 경제적 호혜관계뿐 아니라 안보 협력의 끈을 튼튼히 유지해야 상호 번영·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일본의 제3위 수출국이자 5위 수입국이고 일본은 한국의 5위 수출국이자 3위 수입국으로 상호무역의존도가 매우 높다"면서 "양국 기업들 간 협력이 줄어든다면 투자와 고용, 기업 수익성 감소뿐만 아니라 양국의 경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다만 한일 당국자는 기대와 우려의 엇갈린 시각차를 드러냈다. 유 본부장은 축사에서 "한일은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雨降って地固まる)'는 속담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한일이 힘을 합친다면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신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국경을 초월한 공동 연구개발(R&D)·설비투자 등을 통해 공동 번영을 구가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나가미네 대사는 "작년에 한반도 출신 노동자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로 발생한 문제는 한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국 내 불매운동이 일본 기업 경제활동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 정부가 국교를 정상화한 후 4년 뒤인 1969년 처음 열린 이래 올해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개최된 민관합동회의다. 특히 올해 양국 재계 인사가 한 자리에 모인 건 지난 7월 아베 정부가 전략 물자 수출규제를 본격화하며 급격히 양국 정치외교 관계가 얼어붙은 이후 처음이다. 올해 회의는 원래 5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양국 정치·경제 갈등으로 취소될 뻔했다가 이달로 옮겨 열렸다. 이종혁 기자



24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개막한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그룹 회장),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특명전권대사, 고가 노부유키 노무라홀딩스 회장. 〈김재훈 기자〉

29.9 X 22.2 cm

한국경제

2019년 09월 25일 (수)
01면 종합



손잡은 韓·日 한·일 양국 기업인과 정부 측 인사들이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막한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김앤장 고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고가 노부유키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韓·日 기업인 "경제 잘 굴러가려면 양국 정치·외교 관계 복원 꼭 필요"

서울서 한일경제인회의

"한·일 양국은 숙명적 이웃으로 공존 공영해야 한다."(김윤 한일경제협회장) "양국 간 정치·외교의 복원이 꼭 필요하다."(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의 한일협력'을 주제로 개막한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한 양국 기업인들은 한목소리로 한·일 관계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A8면

상대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양국 관계가 극도로 악화됐지만 이날 회의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한국 측 인사 200여 명과 고가 노부유키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등 일본 측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일 양국은 숙명적 이웃으로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세계 시장에서 선의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며 공존 공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와 구인난 및 취업난 등 양국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소통과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사사키 일한경제협회장은 "한·일 관계에서 경제와 정치·외교는 자동차의 두 바퀴에 해당한다"며 "자동차가 잘 굴러가려면 양국 간 정치·외교 관계의 복원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 첫 회의 이후 한국과 일본을 번갈아가며 1년에 한 차례 열리는 민관합동회의다. 당초 지난 5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9월로 연기됐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24.1 X 18.6 cm

2019년 09월 25일 (수)
08면 경제

"정치·외교에 꽉 막힌 한·일 관계, 경제인들의 포용력으로 풀자"

양국 기업인들 '우호·협력' 다짐

"법, 정치, 외교로 풀기 어려운 문제도 한·일 경제인들의 실용성과 포용력, 합리성으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24일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개막한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한국 측 기조연설자로 나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 회장·한일경제협회 고문)은 이렇게 강조했다. 손 회장을 비롯한 양국 기업인은 한목소리로 '우호와 협력'을 강조했다. 양국 관계가 어려울수록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이 나서자" 공감대 형성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국교 정상화 4년 뒤인 1969년 시작된 민관합동회의다. 올해까지 51년 동안 1991년 걸프전, 2011년 동일본대지진, 2017년 5월 한국의 조기 대통령 선거 등 굵직한 외부 변수가 발생했을 때 몇 달씩 연기된 적은 있지만 무산된 일은 없었다.

올해 분위기는 달랐다. 예년처럼 5월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연기되면서 한때 '취소설'이 나돌기도 했다. 한·일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일본 측에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국 기업인은 다시 회의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 한·일 경제전쟁이 지속되는 와중에서도 양국 경제계가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 기업인으로는 류진 풍산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선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오카 모토유키 스미토모상사 특별고문, 우에다 가쓰히로 오오가키정공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스미토모화학 회장 등이 나왔다.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이날 "양국 기업인들은 공존과 공영이라는 사명감을 공유하며 소통·교류·협력의 창구로 활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간 실질적 협력이 다른 분야로 확산되는 협력의 선순환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맨 왼쪽)이 24일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개막한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왼쪽 두 번째부터)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등이 축사를 듣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양국기업이 소통·협력 창구될 것"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기업 주도 인재·문화 교류 늘리자"

기조연설 나선 손경식 경총회장 "한·일간 경제·안보 협력 긴밀해야 서로의 번영·안정도 담보 돼"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미쓰비시상사 특별고문)은 "한·일 기업들이 더욱 협업을 촉진해 양국 공통의 이익을 확대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인재와 문화 교류에도 앞장서 양국 관계 회복에 기여하자"고 화답했다. 그는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로 △제3국에서의 협업 △인재·문화 교류 △차세대 네트워크·지역교류 활성화 △내년 도쿄올림픽 성공 협력 등을 제시했다.

사사키 회장은 "두 나라 기업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 제3국에서 총 95건, 280억달러에 달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양국이 제3국에서 협업하면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제3국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국제적 위상도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3국 비즈니스에는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양국 정부의 정치·외교적 긴장감도 완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보 협력해야 번영과 안정 가능"

손 회장은 "두 나라 경제인이 함께 모여 신뢰와 협력관계를 확인하고 연구개발과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협력하면 양국 관계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은 글로벌 밸류체인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해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데 기여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무역분쟁은 국제분업 선순환 구조를 왜곡시키고 양국 기업 모두에 불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외교·안보 현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한·일 양국은 경제적 호혜관계 뿐만 아니라 안보 협력의 끈을 튼튼히 유지할 때 서로의 번영과 안정이 담보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 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에 관한 상호 신뢰가 중요하며, 한·일 양국은 감정의 응어리를 뛰어넘어 역내 질서에 대한 현실적 협력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측 기조연설자로 나선 고가 노부유키 노무라홀딩스 회장(일한경제협회 부회장)은 "글로벌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일본의 협업은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33.2 X 22.6 cm

한국경제
2019년 09월 25일 (수)
08면 경제

"정치 뜨거워도 경제는 차갑게" 기업이 韓·日대화 물꼬 튼다

11월 전경련·게이단렌 주최로 도쿄서 한일재계회의 또 열어

이재용 부회장, 日재계 초청으로 '일본 럭비 월드컵' 개회식 참관

관계 개선 '신호탄' 분석 나오기도

상대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됐지만 양국 기업인은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협력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글로벌 분업 체제 속에 두 나라 기업 간 공급망 유지가 중요한 데다 냉랭해진 양국 정부가 대화의 물꼬를 트려면 민간 영역에서라도 창구를 열어놓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4일 개막한 한일경제인회의 이후로도 양국 기업인의 만남은 이어진다. 한·일 민간 경제외교의 주요 채널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인 게이단렌은 11월 14~15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재계회의'를 연다. 두 단체는 1983년부터 이 회의를 지속하고 있다.

양국 관계 악화로 2007년 회의 이후 7년이나 중단되기도 했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으로 한·일 관계가 급격하게 나빠지면서다.

얼어붙은 양국 관계에 해빙 무드를 마련한 인물은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었다. 허 회장은 2014년 도쿄를 찾아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당시 게이단렌 회장을 만나 회의를 재개하자고 설득했고, 그해 7년 만에 회의가 다시 열렸다. 이후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정치는 뜨거워도 경제는 차갑게"를 모토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경련 등에 따르면 올해 한일재계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기업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업 차원의 협력 프로그램도 모색한다.

한국과 일본 기업이 공동으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지역에 진출하는 방안도 고민한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중국과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돌아선 가운데 한국과 일본 기업이 힘을 모아 자유무역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소통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0일 럭비 월드컵 조직위원장인 미타라이 후지오 캐논 회장의 초청을 받아 도쿄에서 개막한 '2019 일본 럭비 월드컵' 개회식과 개막전을 참관했다. 이 부회장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등 세계 정상들과 함께 럭비 경기를 관람했다.

경제계에서는 미타라이 회장이 아베 총리가 참석하는 공식 행사에 이 부회장을 초청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11.5 X 20.2 cm

서울경제

2019년 09월 25일 (수)
01면 종합

손 잡은 한일경제인…양국정부 답할까

롯데호텔서 51회 한일경제인회의
"세계 경제 급변…양국 협력 중요
갈등 장기화땐 경쟁국만 반사익"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등으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양국 경제인들이 손을 맞잡았다. 경제인들은 어떤 갈등과 어려움에도 경제협력만큼은 평소처럼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제 양국 정부가 답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기사 3면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은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개회사에서 "한일관계가 어려운 시기에 열리는 회의이니 만큼 우리 경제인의 사명과 각오가 예년과 달리 특별하다"며 "한일 양국은 선의로 경쟁하면서 최대한의 협력을 통해 공존공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이날부터 이틀간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의 한일 협력'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지난 1969년 시작돼 매년 열렸지만 올해는 애초에 예정된 5월 당시의 한일갈등으로 개최 일정이 기약 없이 미뤄지며 50년 만에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저출산, 고령화, 구인난과 취업난 등 공통의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기에 소중한 소통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최근 갈등에 휩싸여 경색된 양국관계는 상호 간 입장 존중의 바탕에서 대화와 협력이 간절하다"고 강조했다.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은 "한일 양국의 정치외교 관계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양국이 구축해온 양호한 상호 경제관계도 위기"라며 "이번 회의에서 한일이 각국 국민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진정성 있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기조연설에서 "동북아 평화와 번영, 국제 분업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간의 우호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양국 정부의 협력을 통해 동반하락이 아닌 동반성장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한일 경제인들은 한일갈등이 중국은 물론 미국·유럽 등 경쟁국들에 반사이익을 주고 있다며 경제인들의 노력을 정부가 이어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철민·변수연기자
chopin@sedaily.com



한일경제인 "소통·협력합시다" 24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명환(왼쪽부터) 전 외교통상부 장관, 손경식 경총 회장,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고가 노부유키 노무라증권 회장. /이호재기자

24.4 X 32.6 cm

서울경제

2019년 09월 25일 (수)
03면 경제

韓 "경제·민간교류 지속해야" 日 "제3국서 공동사업 추진하자"

"한일 양국이 경제협력을 위해 물밑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일본 기업인들도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행사가 어렵사리 개최된 것은 양국 경제인들은 경제교류를 지속하려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김윤 "양국 수평 분업은 부품·소재·장비 제품으로 연결"
사사키 "스마트시티 개발 등 공조…올림픽도 협력을"
유명환 "북한 개혁·개방 과정서 한일경협 증요" 강조

일본 정부의 수출제재 조치 이후 24일 한일 경제인들이 첫 만남을 가졌다. 한일 간 갈등이 양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경제인들부터라도 나서야 한다는 절박함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만남을 만들었다. 이날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김윤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경제인회의의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1969년 시작된 이래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열렸던 한일경제인회의가 올 5월 양국 관계 악화로 무산될 뻔한 위기를 언급한 것이다. 실제 일본 정부가 7월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뒤에도 양국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으로 갈등을 고조시켜왔다. 하지만 한일 재계 대표들은 양국 경제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만큼 민간 차원에서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김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경제는 생산·분배·소비로 이뤄지는 유기체"라며 "한일 간 수평분업은 부품·소재·장비제품으로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국 기업은 과거가 아닌 미래, 이념이 아닌 현실을 보고 미시적 노력을 함께하고 있다"면서 "투명한 경영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재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한일 경제인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소통·교류·협력의 창구로 활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겸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은 한일관계 악화로 일본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우선 안타까움을 표했다. 사사키 회장은 "한국 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어 대단히 마음아프다"면서 "불매운동으로 한국 내 일본 기업과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입고 있고,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도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김윤(왼쪽) 한일경제협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사사키 회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양국 기업이 제3국에서의 공동 프로젝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한일 양국이 기존 인프라 개발 외에도 스마트시티 등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에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제3국의 사회 발전에도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국 기업이 공동 이익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통해 한일관계 복원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사키 회장은 그 외에도 호혜적인 경제관계를 유지·발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재·문화교류 ▲차세대 네트워크·지역교류 활성화 ▲올림픽 성공 협력 등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 진출한 기업은 1,070개로 서울재팬클럽에 가입한 400개사만 해도 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한일 고교생 교류 캠프 및 한일 학생 회의 등 다양한 민간 풀뿌리 교류는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한일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전 장관은 "한국의 힘만으로는 북한의 개혁·개방 이후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따라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이때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통일을 추구하는 한국은 일본·미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축사를 맡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양국 기업인의 만남이 한일관계 회복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유 본부장은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간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행사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한국 정부도 양국 간 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적 노력 등을 기울여나가고 신뢰에 기초한 경제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어 "양국 간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제한되고 서플라이체인이 흔들리는 현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국과 일본 간 적극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 양국이 직면한 과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의 한일협력'을 주제로 새로운 50년의 한일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이날 회의의 부대행사로 양국 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주관하는 '한일 산업 기술페어 2019' 행사도 열렸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36.2 X 18.4 cm

서울경제

2019년 09월 25일 (수)
03면 경제

손경식 "한일갈등으로 첨단산업 경쟁력 약화"

기조연설

불확실성·불안정성만 증폭

경제 넘어 안보협력 유지해야



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일갈등 심화는 상호 손실을 가져다줄 뿐이고 제3국에만 이익을 주는 역설적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한일 경제갈등으로 양국이 강점을 가진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이 약화돼 중국 등 제3국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다.

손 회장은 이날 한일경제인회의 기조연설에서 "최근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이 기술패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 한일관계의 경색은 역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증폭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은 "한일 양국은 경제적 호혜 관계뿐만 아니라 안보협력의 끈을 튼튼히 유지할 때 번영과 안정이 확보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자유무역질서와 국제분업체제에 기반한 '글로벌 가치 사슬망'에서 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은 일본의 제3위 수출국이자 5위 수입국이고, 일본은 한국의 제5위 수출국이자 3위 수입국"이라며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망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해 세계 경제를 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국의 비교우위를 서로 연결해주는 국제분업체제하에서 제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가치 사슬망의 선순환적 작동을 저해하게 된다"며 "최근 한일 간 무역분쟁은 오랜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국제 공급망에 예측 불가능성을 초래해 국제분업의 구조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협력체계 붕괴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일본 기업들은 수출시장이 축소되고 한국 기업들은 생산비용이 증가해 서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양국 관계를 재구축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가치 사슬망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고 세계 경제 성장에 공헌하는 경제협력의 축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일경제인회의가 협력관계를 재구축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도모하게 되면 양국 관계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행사 직후 기자들과 별도로 만나 정치·외교적 노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정치·외교적으로 경색되면 기업인들이 자신감을 갖고 활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철민·변수연기자

chopin@sedaily.com

17.9 X 12.8 cm

서울경제
2019년 09월 25일 (수)
39면 사설/칼럼

'합리적 접근 필요하다'는 경제인 지적 새겨들어라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된 한일 양국의 정치외교·무역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경제계가 손을 맞잡는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경제계를 시작으로 교류가 활성화되며 양국 갈등 해소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다.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제51회 한일경제회의'를 시작했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의 한일 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양국 경제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동북아 평화와 번영, 국제 분업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우호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일관계가 어려운 때일수록 경제인들의 실용성과 포용성·합리성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은 "한일 양국은 선의로 경쟁하면서 최대한 협력을 통해 공존공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사키 마키오 일한경제협회장은 "경제와 정치·외교는 자동차의 두 바퀴와 같아 양국 간 정치·외교 관계 복원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한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등으로 한일관계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열린 이번 한일경제인회의에서는 정경분리 대응을 통해 한일 양국의 유대관계를 회복시키자는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과거사 문제는 양국 정부가 외교로 풀고 경제인들은 자유무역과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글로벌 경제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경제인들이 역설한 것처럼 과거사 문제로 경제보복전이 장기화하면 한일 양국 모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감정으로 대응하기보다 어느 때보다 냉철하고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다. 양국 정치인들도 한일관계 복원만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16.8 X 10.0 cm

2019년 09월 25일 (수)
03면 종합

"이렇게 가단 일난다" … 무역갈등 불안 드러낸 日

한일경제인회의, 양국 재계 인사 300여명 참석
日 "韓불매운동 타격"… 한국도 관계회복 역설

한일 경제전쟁 이후 처음 열린 대규모 경제단체 회동에서 일본 경제인단과 취재진은 불안감을 숨기지 않았다. 한국 재계 앞에서 불매운동에 따른 충격을 먼저 언급하고 자유무역 훼손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올해로 51회를 맞은 한일경제인회의가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지난 7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열린 한일 경제단체 회동이다. 300여명의 한일 재계인사가 운집했다. 양국을 합쳐 200여명의 취재진도 몰렸다.

통상 선린우호가 최우선인 회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달랐다.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인회장(전 미쓰비시상사 회장)이 한국의 불매운동을 언급했다. 그는 "(불매운동으로) 일본 기업뿐 아니라 한국 내 일본계 기업 등이 폭넓게 데미지(damage)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사사키 회장은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한국 방문객이 매우 줄어 관광업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등 불매운동이 한일 양국 비즈니스에 절실한 문제가 됐다"며 "지금까지 구축한 호혜관계가 위기에 놓인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고가 노부유키 노무라홀딩스 회장은 "(양국이) 새로운 안건을 시작하기에는 지금까지 마주하지 못했던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았다"며 "다만 한국과 일본 재계가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대화하는 의의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민간교류의 의의에 대해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냉각된 한일관계는 그간 정치언어로만 설명됐다. 무역전쟁을 바라보는 일본 기업인의 언어가 그대로 전해진 것은 처음이다.

일본 언론의 위기의식도 감지됐다. 이날 취재에 나선 일본 언론은 차분히 현장소식을 타전하면서도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일본 유력 경제매체 기자는 "이대로는 안된다. 정치와 경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국간 갈등이 발생한 적은 종종 있지만 정치적 갈등과 긴장관계가 경제에 영향을 준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일본 언론도 저마다 논조가 다양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제매체들은 자유무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표현 수위는 달랐지만 한국 기업인들의 우려도 마찬가지였다. 한일경제인회장을 맡은 김 윤 삼양홀딩스 회장은 "조속히 양국 관계가 복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간 수평분업은 부품과 소재, 장비로 연결돼 있다"며 "양국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며 이념이 아닌 현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양국이 감정의 응어리를 뛰어넘어 역내 질서에 대한 현실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처럼 양국의 만남과 대화 노력이 쌓여간다면 앞으로 한일 경제협력 관계는 비온 뒤 굳은 땅처럼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고 힘을 보탰다.

이번 회의는 25일까지 계속된다.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반영하듯 장관급 인사의 참석은 성사되지 않았다.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회의에는 아베 신조 총리가 참석했다. 우경희·기성훈 기자 cheerup@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고가 노부유키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35.8 X 21.0 cm

이데일리
2019년 09월 25일 (수)
12면 산업/무역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과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특별고문) 등이 24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김 회장, 사사키 회장,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고가 노부유키 노무라증권 회장. 연합뉴스

마주 앉은 한·일 경제인들 "양국 다시 손 잡아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증폭된 한·일 양국간 경제전쟁이 화해의 싹을 띄울 수 있을.

한·일 주요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무역갈등 해법을 논의했다. 24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다. △기조연설 △특별강연 △토론회 등을 통해 정치·외교적으로 꽉 막혀버린 최악의 갈등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지난 1969년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50년간 이어져온 한·일 주요 경제인간의 교류의 장이다. 최근 한·일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의 한·일협력'을 주제로 모였다. 아울러 새로운 50년의 한·일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단장들은 한·일 양국간 갈등상황 타개를 강조하면서 관계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일 양국은 숙명적 이웃으로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세계시장에서 선의로 경쟁하면서 최대한의 협력을 통해 공존공영해야만 한다"며 "저출산 고령화, 구인난과 취업난 등 공통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기에 소통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양국 관계의 갈등과 경색이 너무 안타깝고 상호간 입장 존중의 바탕 위에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 뒤 "한·일 양국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면서 최대한의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아울러 내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한·일우호증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도 "경제와 정치·외교가 자동차의 두 바퀴라는 것, 그리고 양국 간에 정치·외교 관계의 복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고 강조했다. 사사키 회장은 호혜적인 한·일간 경제관계 유지·발전방안으로 △한일 양국의 제3국 협업 △인재·문화교류 △차세대 네트워크·지역교류 활성화 △올림픽 성공 협력 등을 제언했다.

한·일경제인회의서 무역갈등 해법 모색

김윤 회장 "공존공영 위해 대화 나서야"
사사키 회장 "정치·외교관계 복원 필요"

이번 회의는 한국 측에서 김윤 회장을 비롯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이수훈 전 주일한국대사, 류진 풍산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사장, 정탁 포스코 부사장 등 203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선 사사키 회장을 포함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고가 노부유키 부회장(노무라홀딩스), 아소 유타까 부회장(아소시멘트), 오카 모토유키 부회장(스미토모상사), 우에다 카츠히로 부회장(오오가키정공), 이미즈 하루히로 부회장(일간공업신문), 이케다 마사키 부회장(호텔오쿠라), 도쿠라 마사카즈 부회장(스미토모화학), 무라카미 노부히코 부회장(도요타자동차) 등 102명이 자리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20.3 X 24.6 cm

파이낸셜 뉴스
2019년 09월 25일 (수)
01면 종합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24일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이틀 일정으로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고가 노부유키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사진=박범준 기자

등돌린 한일정부, 재계는 손잡았다

서울서 경제인회의 개최
300여명 '신뢰 회복' 한목소리
韓 "제3국에만 이익 돌아가"
日 "불매운동 반드시 해결되길"

한국과 일본의 주요 기업인들이 24일 서울에서 회동을 갖고 갈등 해소에 물꼬를 텄다. 한·일 재계가 만나 양국 정부에 관계회복을 요구한 건 지난 7월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 처음이다. 극한위기로 내몰린 한·일 경제협력이 회복하는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한일경제협회는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이날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열었다. 양국 재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해 한·일 갈등이 첨예한 현 상황을 우려하는 동시에 경제를 비롯한 정치·외교 전반에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데 공통의 의견을 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개막사에서 "한·일 간 경제는 수평적 분업체계로, 부품·소재·장비 제품들이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선의로 경쟁하고 또 최대한 효율을 내기 위해 공존·공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무역분쟁에 대한) 인식과 중대한 사명을 한·일 경제인이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통과 교류협력의 창구로 활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은 "현재 한·일 양국의 대화가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계는 비교적 침착하게 연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양국 간 강한 교류 의지를 나타냈다.

다만 국내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선 매우 우려했다. 사사키 회장은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매우 줄어 관광업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며 "불매운동은 한·일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 절실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그는 양국의 경제관계 유지·발전방안으로 △한·일 양국의 제3국에서의 협업 △인재·문화 교류 △차세대 네트워크·지역교류 활성화 △도쿄올림픽 협력 등을 제언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일 간 갈등 심화는 상호 손실을 가져다줄 뿐"이라며 "오히려 역내 제3국에만 이익을 주는 역설적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을 새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일 안보협력을 역설하며 "한·일 양국은 경제적 호혜관계뿐만 아니라 안보협력의 끈을 튼튼히 유지할 때 서로의 번영과 안정이 확보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월 4일 일본 경제보복 이후 처음 열린 양국 기업인들 간 공식행사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갈등이 연일 격화되고 있는 양국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25일 진행될 행사에선 양국 재계의 공동성명 채택과 공동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한편,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의 국교정상화 4년 뒤인 1969년 양국 경제협력 증진을 취지로 시작한 이래 매년 양국을 번갈아가며 열리고 있다. 대표적인 민간 중심 경제협력 행사로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았으며 1991년 걸프전과 2011년 동일본대지진, 2017년 대선 때만 일정이 연기됐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18.5 X 26.7 cm

파이낸셜뉴스
2019년 09월 25일 (수)
31면 사설/칼럼

"감정의 응어리 씻자" 한·일 기업인들의 호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이 24일 "한·일 양국은 감정의 응어리를 뛰어넘어 역내 질서에 대한 현실적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롯데호텔에서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의 한·일 협력'을 주제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 기조연설에서다. 손 회장은 "한·일 간 무역분쟁은 양국 기업 모두에 불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두 나라 정부의 협력을 통해 동반하락이 아닌 동반성장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감정싸움의 수렁에 빠진 두 나라 정치지도자들이 귀담아들어야 할 고언이다.

한·일 무역분쟁은 이해하기 힘든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먼저 일본이 역사 문제에 경제를 걸고 넘어졌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한국도 가만있지 않았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를 통보하고,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이어 한국판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뺐다. 또 다른 시한폭탄이 있다. 지금 한국 법원은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를 밟는 중이다. 실제 매각이 이뤄지면 한·일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된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풀 해법을 찾아야 한다. 당장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면 최소한 정경분리 원칙이라도 천명하는 게 옳다. 손 회장은 한·일 갈등이 "국제분업의 선순환 구조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세계 3위, 한국은 11위의 경제국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 그런 두 나라가 과거에 얽매여 국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모습은 보기에도 참 민망하다.

한·일 경제인에게도 당부한다. 정치권 눈치는 그만 보고 불만이 있으면 당당히 표출하기 바란다.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 기업이 정치에 맞서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안다. 그러나 두 나라 경제인이 힘을 모아 한목소리를 내면 정치권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일 양국 정부에 보내는 공동성명이 나오길 기대한다.

14.0 X 12.7 cm

디지털타임스

2019년 09월 25일 (수)
01면 종합



손잡은 韓日 경제人 24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고가 노부유키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박동욱기자 fufus@

"정치가 경제 흔든다" 韓日 재계 한목소리

양국 외교·경제관계 회복 공감대
국제공급망 불확실성 초래 우려도

한일 재계 인사들이 최근 양국 정부 간 갈등 고조에 대해 "정치가 경제를 흔드는 상황"이라며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호혜 관계인 만큼, 감정의 응어리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24일부터 이틀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한 한일 재계 인사 300여 명은 양국 간 갈등이 첨예한 현 상황을 우려하고, 경제를 비롯한 정치·외교 전반에서 관계 복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일본 재계를 대표해 방한한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인 회장은 "한일 양국에 정치적으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구축해 온 상호호혜 관계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키오 회장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이며,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여행객도 줄어 심각한 영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양국의 정치·외교·경제 관계 복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일본측 참석자는 "정치적 갈등이 경제에 영향을 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대로는 안된다"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일 양국은 경제적 호혜관계 뿐만 아니라 안보 협력의 끈을 튼튼히 유지할 때 서로의 번영과 안정이 확보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 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에 관한 상호 신뢰가 중요하며, 한일 양국은 감정의 응어리를 뛰어넘어 역내 질서에 관한 현실적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 무역분쟁은 국제공급망에 예측불가능성을 초래하는 것으로, 국제분업 선순환 구조가 왜곡되고 양국 기업 모두에 불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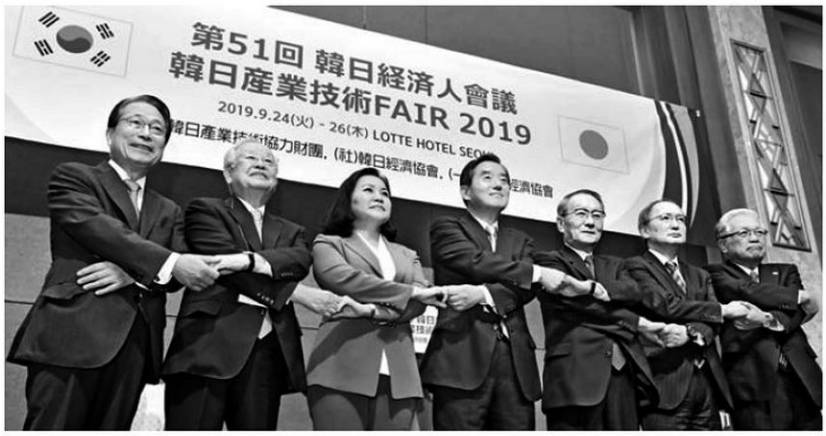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 인사에서 "저출산 고령화, 구인난과 취업난 등 공통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기에 소통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국교정상화 4년 뒤인 1969년 양국 경제협력 증진을 취지로 시작된 뒤 양국을 오가며 매년 열리는 대표적인 민관 합동 경제협력 행사다.

박정일기자

23.8 X 23.3 cm

전자신문
2019년 09월 25일 (수)
25면 인물



손잡은 한일경제인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가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일본 정부의 수출 제재 이후 한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국 경제인이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했다. 왼쪽부터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고가 노부유키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11.1 X 8.9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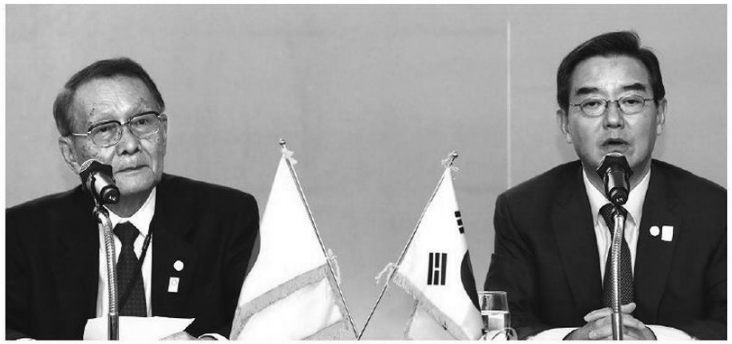
문화일보
2019년 09월 24일 (화)
24면 경제

"막힌 관계 뚫자"… 한·일재계, 무역갈등 해법내놓나

'한·일경제인회의' 개막

김윤·사사키 양국 회장 등
경제계인사 200여명 참석
5월 한차례 연기됐다 열려
한·일 갈등이후 첫 한자리
공동성명·회견 내용 주목

권도경 기자



김윤(오른쪽) 한일경제협회 회장과 사사키 미키오(佐佐木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이 지난 2017년 9월 2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로 양국 관계가 경색된 이후 한·일 재계 인사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한때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됐던 민간 행사가 열리면서, 민간 부문에서나마 양국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일 양국의 경제·산업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하는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가 24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틀 일정으로 개막됐다.

한국 측에서는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을 비롯해 류진 풍산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佐佐木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특별고문)을 필두로 고가 노부유키(古賀信行) 부회장(노무라증권 회장), 무라카미 노부히코(村上晃彦) 부회장(토요타자동차), 도쿠라 마사카즈(十倉雅和) 부회장(스미토모화학) 등이 참석했다.

올해 주제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의 한·일 협력'이다. 첫날 개회식과 기조연설, 특별강연, 환영 리셉션 등에 이어 이튿날 '한·일 관계의 새로운 도약'과 '한·일 공통과제의 실현'을 주제로 한 토론회, 폐회식, 공동 기자회견 등으로 진행된다.

첫날 내빈 축사에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일본대사가 나란히 초청됐다. 기조연설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특별강연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각각 맡았다. 이틀째 행사에는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과 고하리 스스무(小針進) 일본 시즈오카현립대 교수가 각각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식 행사가 마친 후에는 공동성명 채택과 공동기자회견도 예정돼있어 최근 경제 갈등 현안에 대해 양국 대표단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가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행사가 한·일 관계가 악화한 와중에 열리는 만큼 양국 관계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반면 양국 정부가 강경한 만큼 민간 행사로 별다른 진전을 이룰 수 없을 것이란 비관론도 상당하다.

국교정상화 4년 뒤인 지난 1969년 처음 열린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을 오가며 열리는 대표적인 민간 중심 경제협력 행사다. 50년 동안 한 차례도 중단되지 않고 매년 개최됐다. 하지만 올해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애초 예정됐던 5월에 열리지 못하고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28.7 X 12.4 cm

석간 내일신문
2019년 09월 24일 (화)
17면 산업/무역

한일 재계대표단, '협력 해법' 도출 시도

한일경제인회의 서울 개막
내일 공동기자회견 주목

한일 양국의 재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하는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가 2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틀 일정으로 개막한다.

한일경제협회(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와 일한경제협회(회장 사사키미키오 미쓰비시상사 특별고문)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최근 한일 갈등이 첨예화한 가운데 열려 더욱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의 한일 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이튿날 '한일 관계의 새로운 도약'과 '한일 공통과제의 실현'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진행된다.

특히 첫날 내빈 축사에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일본대사가 나란히 초청돼 최근 양국간 수출 규제 강화 등 무역 갈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기조연설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특별강연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장관이 각각 맡았다. 이틀째 행사에는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과 고하리 스스무 일본 시즈오카현립대 교수가 각각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공식 행사가 마친 뒤에는 공동성명 채택에 이어 공동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어 최근 현안에 대해 양국 대표단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15.3 X 7.9 cm

아시아경제 석간
2019년 09월 24일 (화)
12면 경제

韓日 경제인 '관계 회복' 출구찾기

서울서 한일경제인회의… 日 수출규제 이후 첫 모임

손경식 회장, 한일 양국 기업 신뢰 회복 강조할 듯
정부관계자들도 참석… 재계 "최악은 면했다" 안도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이후 한일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인 300여 명이 처음으로 서울에서 만난다. 이들이 얼어붙은 한일 관계에 대한 민간 차원의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한일경제인협회와 일한경제인협회는 이날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공동 개최한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 한일 협력'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의 기조연설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 회장)과 고가 노부유키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이 맡는다.

이번에 열리는 한일경제인회의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올해로 51년째를 맞는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부터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됐다. 50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열렸으나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올해는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됐다. 결국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이 나서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을 만나 설득했고, 9월 개최에 합의했다.

손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민간 기업들이 한일 경제협력 회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한일 관계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며 양국 간 민간 경제 교류 활성화의 중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지난 6월 경총이 주최한 한일 관계 관련 세미나에서 "과거에는 한일 양국의 정치적 환경이 어려워진 경우에도 경제협력과 경제인들의 우호 친선 관계는 공고히 유지됐다"며 "한일 양국 경제인들과 기업들이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국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행사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가 양국 정부를 대표한다. 이들은 축사를 통해 최근 한일 관계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재계에서는 손 회장을 비롯해 김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오석송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회장, 고가 부회장, 모리야마 도모유키 한국미쓰이물산 사장 등이 참석한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공식 행사를 마친 뒤에는 공동성명 채택에 이어 공동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며 "최근 현안에 대해 양국 대표단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재계에서는 이번 한일경제인회의 개최에 대해 '최악은 면했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악의 정치적 상황에서도 민간 주도 행사가 이어지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국내 재계 주요 인사들이 일본을 방문하며 꽉 막혔던 한일 관계가 민간 차원의 교류를 시작으로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일본 재계의 초청을 받아 일본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5일 이상 일본에 머물면서 현지 정·재계 관계자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이어가고 있다. 이 부회장은 당분간 귀국을 미룬 채 미타라이 후지오 캐논 회장 및 일본 재계 관계자 등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만나는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도 한일 민간 채널 확보를 위한 가교 역할에 나선다. 오는 11월 전경련과 일본 최대 경제단체 게이단렌은 공동으로 도쿄에서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 회장은 숙박 시설 부족 문제 등을 겪고 있는 도쿄하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게이단렌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소연·우수연 기자 muse@

23.4 X 18.6 cm

『이투데이
2019년 09월 24일 (화)
023면 사설/칼럼

사설

한일경제인회의, 협력 복원 돌파구 돼야

한·일 양국 경제인들이 만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일경제인회의가 24일과 25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양국 정부가 서로 상대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정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한·일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1969년 이후 매년 열린 이 회의는 올해로 51회째다.

그동안 한 차례로 거르지 않았던 회의는 올해 중단 위기까지 갔다. 우리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양국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5월 예정됐던 회의가 미뤄졌다.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회의가 무산될 것이란 전망도 많았으나 어렵게 성사됐다. 회의 주제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의 한일 협력'인데, 지금의 갈등 상황을 반영한 '한·일 경제관계와 공급망'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한국 측에서 200여 명, 일본 측에서 100여 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국의 심각한 정치·외교적 대립 국면에 경제인들 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자리다. 하지만 기대치는 낮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여전히 강경 일변도의 대한(對韓) 경제 보복을 멈추지 않을 기세다. 한일 관계는 갈수록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양국 경제가 예전과 같은 협력체제를 복원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경색된 한일 관계가 더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양국은 경제와 안보에서 불가분의 의존 고리로 얽혀 있다. 일본의 부품·소재, 한국의 중간재는 글로벌 공급 사슬의 핵심이다. 그 축이 무너지면 두 나라 모두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일본과 한국은 서로 수출 상대 3위 국가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양국 교역은 수출과 수입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상품 교역 말고도 관광 등 교류도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한·일 간 대립이 격화되고 길어질수록 서로 손실만 커지는 구조다. 양국 관계의 근본적인 파국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든 안보든, 한국과 일본은 결국 같은 방향으로 공동 보조를 취하는 게 서로의 국익을 위하는 길이다. 아베 정권의 적대적 행위가 지속되는 한 양국 관계는 더 막힐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양국 관계는 갈수록 꼬이고 있는 현실이다. 미래의 중대한 걸림돌이다.

그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것이 민간의 협력이다. 갈등 해소의 주체인 정부의 입지와 운신의 범위가 제한될수록, 역설적으로 민간의 역할이 더 커진다. 양국 정치와 외교에 대한 기대는 낮아지고 있다. 관계 복원을 위한 민간 경제와 교류의 활성화가 시급한 이유다. 한일경제회의의 추구해야 할 길이 그것이다. 양국 경제계가 앞장서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세계 경제 환경에 대응하는 상생(相生)의 방도를 함께 찾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13.4 X 25.9 cm

東亞日報
2019년 09월 26일 (목)
08면 종합

한일재계 "대화 통한 관계 복원, 양국 정부에 요구"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한국과 일본 재계가 모인 한일경제인회의는 25일 양국 갈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대화를 통한 관계 복원을 양국 정부에 촉구했다.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24, 25일 이틀에 걸쳐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행사를 마치며 이 같은 내용에 뜻을 모았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정치·외교는 긴장감이 있더라도 민간 교류, 경제 교류는 활발히 지속적으로 해서 글로벌 마켓에서 좋은 기회를 지속해야겠다는 결의를 다졌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국 정부에 양국 정부 간 대화를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양국 정부 대립에는 각자 이유가 있다"며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 조금씩 이해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佐佐木幹夫) 일한경제협회장은 "이번에 채택한 공동성명과 회의 내용에 대해 일본 정부에 설명하고 한일 양국이 구축해 온 경제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두 협회는 △제3국에서의 한일 협업 지속적 추진 △양국의 고용 문제, 인재 개발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경제·인재·문화 교류의 지속·확대 △차세대 네트워크·지방교류 활성화 등 우호적 인프라의 재구축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을 공동성명으로 채택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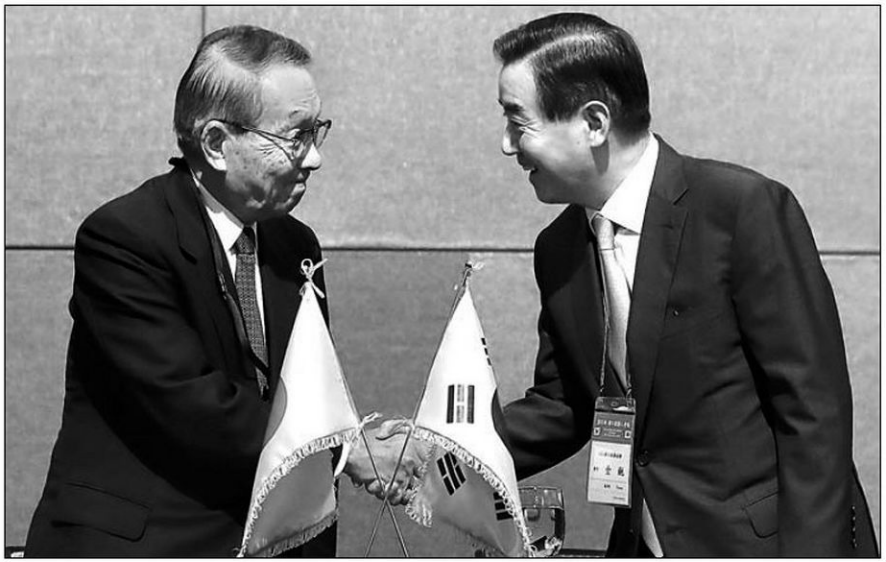
14.1 X 10.4 cm

한국일보

2019년 09월 26일 (목)
10면 종합

日 재계 "불매운동 안타까워… 정부에 양국 대화 요청할 것"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서
"호혜적 경제관계 위기에 처해"
교류 지속 확대 등 협력 추진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폐회식에서 김윤(오른쪽) 한일경제협회 회장과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거듭된 대화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던 일본 정부에게 일본 재계가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과 일본의 주요 기업인들은 "경제 교류는 계속 돼야 한다"며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기자회견에서 사사키 미키오(佐佐木幹夫) 일한경제협회장은 "한국과 일본은 서로 외면할 게 아니라 대화를 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에 공동성명 내용 등을 설명하고 양국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도 "회의 내내 한국과 일본은 이웃이란 말이 가장 많이 나왔다"며 "이웃과 문제가 생겼다고 이사 갈 수 없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이지만 양국이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그동안 양국이 쌓아온 호혜적 경제관계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며 "정치·외교 관계가 양국 기업 협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제3국에서의 한일 협업 지속 추진 △양국의 고용문제, 인재개발 등에 관한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경제 인재 문화 교류 지속 확대 △지방교류 활성화 등 우호적 인프라 재구축 △도쿄 올림픽 성공을 위한 협력 등 5개 과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이후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밝혀온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자 지난 1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제소한 상태다.

일본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 수출 규제와 관련해 사사키 회장은 "한국 고객에게 절대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일본 기업도 노력하고 있다"며 "계약 조건에 따라 납기대로 공급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이 750만명에 달하지만 최근 불매운동으로 그 숫자가 상당히 급감했다"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회장도 "고령화, 인구감소, 부족한 자원 등 양국은 굉장히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다"며 "두 나라가 협력한다면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험난한 세계 시장에서도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 첫 회의 이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매년 열린 민관합동 회의다. 올해는 당초 지난 5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양국 관계 악화로 일정이 미뤄지면서 50년 만에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다.

변태섭 기자

24.0 X 14.8 cm

한국일보
2019년 09월 26일 (목)
31면 사설/칼럼

한일 경제인들의 호소, 외교 대립·갈등 풀 지렛대 돼야

한일 경제인들이 양국 정부에 다시 한 번 정치·외교관계 복원을 촉구했다. 24~25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를 통해서다. 회의는 국교정상화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열려왔으나, 올해는 양국 갈등 여파로 정상 일정이 연기됐다가 이번에 가까스로 열렸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과 사사키 미키오(佐佐木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을 비롯한 양국 경제인 300여명이 참가한 이번 회의에서는 '감정의 응어리를 뛰어넘는 양국 정부의 현실적 협력'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양국 갈등에 대한 경제인들의 시각은 대체로 일치했다. 첫날 기조연설에서 갈등의 배경을 '감정의 응어리'라고 짚어낸 손경식 경총 회장은 "양국 기업 간 협력이 줄어들면 투자와 고용, 기업 수익성 감소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모리야마 토모유키 한국미쓰이물산 대표는 "(국가 관계에서) 정경분리는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며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부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 간 갈등을 기업 간 협력으로 풀어내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우광 ㈜농심 사외이사는 "두 나라는 기업문화, 기술 및 경영관리 수준, 컴플라이언스 등에서 유사성이 많아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이 높다"며 "베트남 등 제3국 진출에서 협력 기회를 찾자"고 주장했다.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주임연구원 역시 제3국에서의 양국 간 서플라이체인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염재호 SK㈜ 이사회 의장은 양국 기업 간 인턴십 프로그램 확대 등 적극적 인력 교류를 제안하기도 했다.

문제는 경제인들의 절박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가 여전히 상황 타개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당장 유엔총회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이 끝내 무산됨에 따라 26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신임 일본 외무장관과의 첫 회담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내기는 어렵게 됐다. 다만 일왕 즉위식 특사 파견 등 우호적 현안이 논의되는 만큼, 양국 정부는 경제인들의 호소대로 정치·외교갈등 해소를 위해 현실적인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16.5 X 10.2 cm

세계일보

2019년 09월 26일 (목)
02면 종합



서울서 만난 한·일 경제인 25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인협회 회장(오른쪽, 삼양홀딩스 회장)과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인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특별고문)이 악수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13.8 X 11.6 cm

세계일보
2019년 09월 26일 (목)
02면 종합

손 맞잡은 한·일 경제인, 정부에 "정치·외교 복원" 첫 촉구

민간·해외서 갈등 해결 압박

홍주형·박현준·이도형 기자,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jhh@segye.com

5월 회의 무산… 다시 열어 목소리
"기업 협력 걸림돌 치워달라" 요청
美 하원선 '韓·美·日 안보협력' 결의

유엔 한·미 회담서도 한·일문제 실종
지소미아 종료일까지 50여일 남아
마지막까지 美에 '중재' 역할 기대

한·일 경제인회의가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양국 관계 회복을 강력히 요청했다. 하반기 가장 큰 외교 이벤트 중 하나인 유엔총회에서는 양국 관계 개선 계기가 마련되지 못했다. 양국 관계의 또 다른 분기점이 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일은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경제인들이 나서… 유엔총회에서 한·일 문제 실종

한·일 경제인들은 이날 서울 회의에서 "한·일의 호혜적 경제 관계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외교 관계 복원이 필요하다"며 "정치·외교관계가 양국 기업 협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의 대화 촉진으로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기를 강력히 요망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관계 개선의 여지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국 경제인들이 처음으로 함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지난 5월 한국에서 열릴 차례였던 회의는 양국 관계 악화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들은 △제3국 한·일협업 지속 추진 △고용·인재개발 등 양국 공통과제 해결 △경제·인재·문화 교류 지속·확대 △차세대 네트워크·지방교류 활성화 등 우호적 인프라 재구축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성공개최 협력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각국 정상이 모이는 유엔총회에서는 양국 관계 개선 계기를 만들지 못했다.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마지막 정상회담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번에는 마주치는 기회조차 피했으며, 양국 영부인이 공식 행사에서 짧은 포옹만 했다. 과거 한·미·일 정상이 유엔총회를 계기로 3자 회담을 갖곤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같은 3자 만남을 주선하는 시도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 넘게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일 갈등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직후 지난달 태국 방콕에서 마지막으로 열렸던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역시 이번에는 성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 종료까지 두 달… 개선 계기 만들 수 있나

일본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미국의 관여에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가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만나 한·일 갈등해결을 위해 '실질적 대화'가 촉진되도록 미국의 '지속적' 역할을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하지만 남은 두 달 미국이 관여해 전격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한·일 문제와 관련 실무급에서 한·미가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는 게 양국 당국의 설명이지만 외부로 드러나 보이는 성과는 미미하다. 어느 한쪽 편을 들 수 없는 미국은 양자 간 문제 해결을 우선 촉구하고 있으며, 특히 지소미아 문제에는 '한국이 경제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전이시켰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 관계 악화로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한·일 경제인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목소리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날 미 의회에서도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중요성과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재확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엘리엇 엥겔(민주·뉴욕) 하원 외교위원장 등이 발의해 24일(현지시간) 하원에서 통과된 결의안은 "한·미·일은 테러와 대량살상무기(WMD), 인권,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라며 "3국은 자유시장과 상업·무역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34.9 X 18.7 cm

「이투데이
2019년 09월 26일 (목)
001면 종합

韓日 재계, 양국 정부에 "관계 복원" 촉구

한일경제협회 공동성명 채택
내년 경제인회의 일본서 개최

한국과 일본 재계가 모인 한일경제인회의가 현 양국 갈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대화를 통한 관계 복원을 양국 정부에 촉구했다.

한일경제협회(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와 일한경제협회(회장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특별고문)는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행사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공동성명에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중 통상마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고조돼 한일 에너지 자원 수입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한일 양국의 정치·외교 관계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분야에서도, 문화·스포츠 교류 분야에서도 안타깝게도 한일 관계는 긴장의 연속"이라며 "우리는 그동안 양국 민관의 선배들이 쌓아온 호혜적이고 양호한 경제관계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이번 회의에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경제교류의 유대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확인했다 강조했다.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는 내년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13.6 X 10.9 cm

매일일보

2019년 09월 26일 (목)
05면 경제

"韓日관계 복원" 경제계 '원성'에 양국 정부 다시 마주 앉을까

양국 갈등·국제정세 위기감 가중 대화 촉구
"제3국서 한일 협업 유대관계 끊겨선 안돼"



지난 24일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개막식에서 양국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고가 노부유키 노무라 증권 회장. 사진=한일경제협회 사무국 제공

최근 한국과 일본이 첨예한 외교·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양국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관계 복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또 한일경제인들은 양국 갈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대화를 통한 관계 복원을 양국 정부에 촉구했다.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행사를 마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공동성명에서 "최근 격동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을 통해 관계 회복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유럽에서는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문제 장기화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미중 통상마찰이 서플라이 체인의 연관성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며 "또한 중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 층 고조되어 있는 등 국제 정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고 위기감을 내비쳤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은 정치 및 외교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경제면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 경제계는 그동안 쌓아온 호혜적이고 양호한 경제 관계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깊이 우려했다.

한일 양국 경제인들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경제교류의 유대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확인했다"며 "가교로서 미래지향의 원점으로 돌아가 잠재적 성장력과 보완관계를 극대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경제인회의에서는 양국 정부가 대화를 통해 관계 복원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양국 정부가 대화 촉진을 통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25일 회의에서 양국 경제인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제3국에서의 한일 협업의 지속적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양국 고용·인재개발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경제·인재·문화 교류 지속·확대', '차세대 네트워크·지방교류 활성화 등 한일 우호적 인프라 재구축',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성공을 위한 협력' 등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날 회의에서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한일 양국은 숙명적인 이웃으로서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세계 시장에서 선의의 경쟁과 최대한의 협력을 통해 공존공영해야만 한다"며 "소통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역시 "경제와 정치·외교는 자동차의 두 바퀴와 같은 것으로, 양국 간 정치·외교 관계 복원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마음이 아프다"면서 "일본계 기업뿐 아니라 한국 기업, 소비자, 노동자 등에 폭넓게 '데미지'(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전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양국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함으로써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데 기여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원료, 부품을 수입하고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거나, 반제품을 중국에 수출한 후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세계시장에 공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미국, 중국, 동남아 등 많은 국가들이 밀접하게 상호 연계되는 국제분업 체계가 선순환 발전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병준 기자 hwangbj@

35.8 X 16.0 cm

매일일보

2019년 09월 26일 (목)
01면 종합

韓日경제인 "경제·인재·문화 교류 지속·확대"

공동성명 채택… '양국 관계 위기 극복' 경제계가 앞장 다짐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들이 최근 한일 양국의 정치·외교 관계 악화와 경제 관계 위기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나타냈다. 〈관련기사 5면〉

양국 경제인들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경제교류의 유대가 끊어져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확인하고, 양국을 잇는 가교로서 양국 경제계는 미래지향의 원점으로 되돌아가 잠재적 성장력과 보완관계를 극대화할 방안을 강구했다.

25일 폐막한 '한일경제인회의'에서는 한일 경제계가 협력, 국경없는 협업 확대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꾀하기로 의견을 함께했다.

이날 양국 경제계는 공동성명을 통해 △제3국에서의 한일 협업의 지속적 추진 △양국의 고용문제, 인재개발 등에 관한 공통과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 △경제·인재·문화 교류의 지속·확대 △차세대 네트워크·지방교류 활성화 등 우호적 인프라의 재구축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을 향한 협력을 함께 하기로 결의했다.

양국은 지난 24일부터 양일한 '급변하는 세계경제속 한일협력'이라는 주제로 미래지향의 양국 경제관계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공통의 사회적 과제에 입각, 양국 경제계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고, 국경없는 협업 확대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꾀하기로 했다.

양국의 호혜적인 경제 관계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외교 관계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

양국 경제계는 한국과 일본 경제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치·외교 관계가 양국 기업 협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의 대화 촉진에 의해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역어나기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일경제인회의는 한국 측에서 김윤 단장 등 203명,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단장 등 106명이 참가했으며, 내년 한일경제회의는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황병준 기자 hwangbj@

23.8 X 9.1 cm

매일경제
2019년 09월 26일 (목)
19면 기업

"출구없이 꽉 막힌 한일외교 경제협력 걸림돌 돼선 안돼"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오른쪽)과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이 25일 '제51회 한일 경제인회의' 폐회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뉍뉴】

韓日경제인회의 폐막

양국 경제인 309명 공동성명
인재·문화교류 등 확대 약속

이틀간 일정을 마치고 25일 폐막한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양국 경제계가 "정치·외교 관계가 기업 협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국·일본 정부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번 회의의 한국 측 단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과 일본 측 단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특별고문)을 비롯한 한일 경제인 309명은 이날 오후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일 양국의 정치·외교 관계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경제 면에서도, 문화·스포츠 교류 등 분야에서도, 안타깝게도 한일 관계는 긴장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국 경제인들은 "한일의 호혜적 경제 관계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외교 관계 복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정치·외교 관계가 양국 기업 협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양국 정부의 대화 촉진에 의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기를 강력히 요망한다"고 강조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내년 일본에서 제52회 회의 개최를 약속하면서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한 경제인들의 실천과제도 제시했다.

△제3국에서 한일 협업의 지속적 추진 △양국의 고용 문제, 인재 개발 등에 관한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경제·인재·문화 교류의 지속·확대 △차세대 네트워크·지방 교류 활성화 등 한일의 우호적 인프라스트럭처 재구축 등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 정치·외교·경제 관계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염재호 SK(주) 이사회 의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한일 관계가 복원력을 상실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고, 일본은 피해자에 대해 마음의 치유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건비와 강성 노조 때문에 한국 투자를 꺼린다는 일본 기업인 지적도 있었다. 모리야마 도모유키 서울재팬클럽 회장(한국미쓰이물산 대표)은 "일본무역진흥기구가 지난해 일본 기업에 설문조사한 결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중 신규 투자처로서 한국 선호도는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면서 "가파르게 증가하는 인건비와 강성 노조 문제로 한국 투자를 꺼리는 형국"이라고 했다.

이종혁 기자

11.7 X 26.8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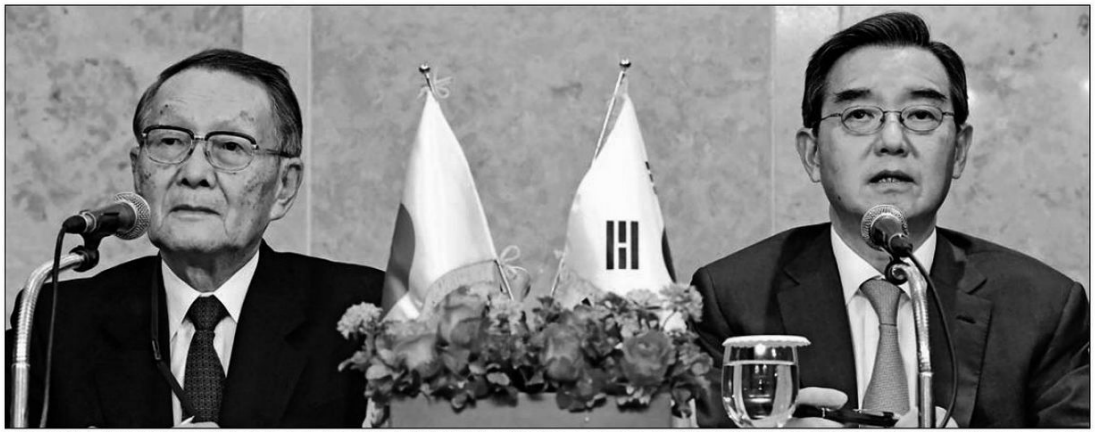
2019년 09월 26일 (목)
03면 경제

"기업간 협력에 정치가 걸림돌 … 韓·日정부가 대화 나서라"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발표

아세안 지역서 기업 협력 강화
경제·인재·문화 교류도 활성화

이수훈 前 대사 "日은 규제 풀고 韓은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해야"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오른쪽)과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이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한국과 일본 기업인들이 "정치·외교 문제가 양국 기업 간 협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일 정부가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상대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제외로 이어지며 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두 나라 기업인들은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열린 이번 회의엔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과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미쓰비시상사 특별고문) 등 양국 경제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양국 기업인들은 "한·일 경제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외교 관계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제3국에서 한·일 기업 간 협업 △고용 문제·인재개발 등 공통과제 해결 협력 △경제·인재·문화 교류 강화 △지방교류 활성화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경제·외교 전문가들은 공동 성명 발표에 앞서 열린 토론회에서 베트남 등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지역에서 두 나라 기업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우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제조업체들과 일본 소재·부품 기업이 협력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며 "스마트시티 조성 등 신사업 분야도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적으로 일본 기업에 위협이 될 것이란 진단도 나왔다.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주임연구원은 "모리타화학은 연내 가동 예정인 중국 공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고순도 불화수소 등을 납품할 계획"이라며 "한국 기업들의 소재·부품 자급화율이 높아지면 일본 이탈현상이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 첫 주일대사를 지낸 이수훈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 기업들은 한국 정부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에 진출한 390개 일본 기업의 모임인 서울재팬클럽의 모리야마 도모유키 회장(한국미쓰이물산 사장)은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면서 '정치와 경제는 분리한다'고 말하는 한국 정부의 설명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일본 의류·맥주·여행 불매 운동은 결국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한국인 직원들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보형/박상용 기자 kph21c@hankyung.com

29.0 X 13.9 cm

"한일 갈등에도 경제교류 끊어져선 안돼"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정부, 상호 발전 위해 대화 나서야
인재·문화 교류로 신뢰 회복 앞장
분쟁 길어질수록 日 손실만 늘어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폐회식에서 김윤(오른쪽) 한일경제협회 회장과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경제인들이 "상호 발전을 위해 양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며 한일 정부 간 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인재 교류나 인프라 구축과 같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한 경제계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일경제인들은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직후 공동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양국 선배들이 쌓아온 호혜적, 양호한 경제관계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양국관계 회복 방안으로 ▲제3국에서의 협업 지속적 추진 ▲고용과 인재개발 등 공통과제 해결 ▲경제·인재·문화 교류의 확대 ▲한일의 우호적 인프라 재구축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성공을 위한 협력 등을 제안했다. 일각에서 "한국이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서로간 대립 양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일 경제인들이 침착하면서도 미래지향적 대응을 주문한 셈이다.

한일경제인들은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의 한일협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간 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일간 갈등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3%포인트 떨어트리고 일본은 7월 이후 두달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일본의 산업 소재 수출 규제로 시스템 반도체 등 한국의 차세대 먹거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글로벌 부품 사슬망에서 이탈로 일본의 소재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는 등 피해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미중 통상 마찰을 비롯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문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 피해에 따른 단기간의 유가 급등 등 글로벌 경제 환경도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시기일수록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경제교류의 유대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확인했다"며 "양국을 잇는 가교로서양국 경제계는 잠재적 성장력과 보완관계를 극대화할 방안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시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정치와 비즈니스 환경이 양호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경제계가 경제·인재·문화 교류를 통해 양국 경제계의 신뢰관계와 양 국민의 원활한 왕래가 조성되도록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열린 둘째날 행사에서는 경제인들의 날선 지적이 이어져 현 경제 상황의 어려움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모리야마 토모유키 한국미쓰이물산㈜ 겸 서울재팬클럽(SJC) 이사장은 오전 세션에서 "일본 본사에 한국 비즈니스 확대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로 보고 제품에 대한 품질과 신뢰성으로 순수하게 판단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수석 주임연구원은 "일본의 수출관리 강화에 대응해 한국 기업이 국산화를 통한 '극일'에 나섰다"며 "한국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둔 일본 기업들은 고객을 잃거나 최소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잃게 됐다"고 우려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오쿠다 사토루 아세아 대학 아시아 연구소 교수가 "분쟁이 장기화 될 수록 일본의 손실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은 행사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우려와 관련해 "일본 기업인들은 한국 기업들에게 절대로 폐 끼치지 않도록 수출절차를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은 "한일 갈등과 관련해 양국 정부의 입장을 보면 한국은 정치와 경제문제를 별도로 생각하는 듯하고 일본은 또 의견이 다른 듯하다"며 "경제인이 정치외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어렵지만 양국 경제인들이 협업하면서 윈윈 기회를 만든다면 양국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철민·박효정·변수연기자
chopin@sedaily.com

23.8 X 22.7 cm

머니투데이
2019년 09월 26일 (목)
02면 종합

"정치·외교 문제, 양국경협 걸림돌 안돼야"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제3국 협업'등 추진… 경제전쟁 관련 시각차는 여전

"양국 경제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치·외교관계가 양국 기업 협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

벼랑 끝 한일관계지만 경제협력의 고리는 굳건했다. 한국과 일본 재계는 한목소리로 양국의 정치·외교 정상화를 촉구했다. 일본의 반도체소재 수출제재로 촉발된 경제전쟁 발발 이후 첫 양국 경제계의 입장표명이다.

김 윤 한일경제협회장과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은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이를 마지막으로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도 막을 내렸다. 시종 긴장감 속에 진행됐지만 결론은 "경제협력은 계속돼야 한다"였다.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기자회견이 열린 25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오른쪽)과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제협력 유지·발전 위해 양국관계 복원돼야"**=양국 경제인은 성명에서 "한일의 호혜적 경제관계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외교관계 복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양국 정부의 대화 촉진으로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기를 강력히 요망한다"고 밝혔다. 또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금까지 발전시킨 경제교류의 유대가 끊어져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확인했다"며 "양국을 잇는 가교로서 경제계가 미래지향의 원점으로 돌아가 잠재적 성장력과 보완관계를 극대화할 방안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양국 경제인은 이와 함께 △제3국에서 한일 협업 추진 △양국 고용문제, 인재개발 등에 관한 공통과제 해결 협력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성공을 향한 협력 등을 추진키로 했다.

◇**양국 기업인 시각차 분명해…불매운동 불안감도**=이번 회의는 초유의 경제전쟁을 벌이는 양국 관계를 반영하듯 시종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물론 토론 패널들의 발언도 상대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시각차는 분명히 드러났다.

모리야마 도모유키 한국미쓰이물산 대표는 "국민정서를 아무리 내세워도 입장차는 좁힐 수 없다"며 "한국과 일본은 양국 조약에 따라야 한다"고 말해 이전 정부간 배상 합의를 깬 한국 측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모리야마 대표는 "한국의 불매운동이 B2C(소비자 대상 업종) 사업에 영향을 주지만 이대로라면 B2B(기업간 거래업종) 사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모두가 먹고싶은 걸 먹고, 사고싶은 걸 사고, 가고싶은 곳에 가는 상황을 너무나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측 패널로 나선 이수훈 전 주일대사(경남대 교수)는 "일본의 경제보복 동기가 무엇이든 성공하기 어렵다"며 투트랙외교 복원과 경제보복조치 철회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래도 결론은 경제협력이었다. 김 윤 회장은 "양국의 소통과 교류, 협력은 계속 이어져야 하며 양국 경제인들이 그 선두에 서 있다"면서 "비록 지금 여러 갈등이 있다 해도 이를 극복하고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사키 회장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긴장감이 있었지만 30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솔직하게 논의하고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다"며 "당초 5월에 열기로 한 회의가 9월로 한 차례 미뤄졌지만 회의 취소를 우리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경희 기자 cheerup@

23.4 X 17.8 cm

이데일리
2019년 09월 26일 (목)
12면 산업/무역

"한·일 정치·외교 갈등, 기업협력 걸림돌 안돼"

한·일경제인대회서 공동성명

"양국 정부, 적절한 조치 강구해야"

제3국서 협업·고용문제 해결 등

재계 경제교류 협력 지속 뜻 모아

"한국과 일본의 정치·외교 관계가 양국 기업 협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양국 정부에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길 강력히 요망한다."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이 최근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한·일 관계의 해소를 위해 양국 정부에게 '대화 촉진'과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다. 양국 경제인은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51회 한·일경제인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과 더불어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력 추진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일본 경제인들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간 경제교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귀국 후 일본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한·일 관계 개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한·일 경제인들은 △제3국 한·일 협업 지속 추진 △한·일 양국의 고용문제·인재개발 등 양국 공통과제 해결 협력 △한·일 간경제·인재·문화 교류의 지속·확대 △차세대 네트워크·지방교류 활성화 등 한·일의 우호적 인프라의 재구축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성공개최 협력 등에서 상호 협력키로 했다. 양국 경제인은 공통 사회적 과제에 입각해 경제계가 협력해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경없는 협업' 확대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양국 경제인들도 한·일 경제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치·외교 관계가 양국기업 협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거듭 강조했다.

김윤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와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은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인들은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경제교류의 유대가 끊어져선 안 된다는 신념을 확인했다"며 "양국을 잇는 가교로서 양국 경제계는 미래지향의 원점으로 되돌아가 잠재적 성장력과 보완관계를 극대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정치·외교 관계가 양국 기업 협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대화를 촉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기 위한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윤(오른쪽) 한·일경제협회 회장이 25일 '제51회 한·일경제인대회' 기자회견에서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한·일경제협회 제공

김 회장은 이날 한·일경제인대회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양국 정부간 입장은 조금 다르다. 한국은 '투트랙'으로 정치·외교와 경제를 별도로 생각하자는 것이지만 일본은 조금 다른 듯 하다"며 "경제인들이 정치·외교 문제를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건 어렵지만 경제활동을 통해 협력해 상호 '윈윈'하는 기회를 만든다면 이 자체가 양국 관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사키 회장도 한·일 양국의 정치·외교 갈등 속에서 경제계는 다양한 형태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22.5 X 12.8 cm

이데일리
2019년 09월 26일 (목)
01면 사설/칼럼

경색된 한·일관계 빨리 풀어야 한다는 하소연

외교적 갈등에서 촉발된 한·일 경제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양국 경제인 300여명이 어제 끝난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우호와 협력을 강조했다. 서울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는 당초 예년처럼 5월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양국 간 마찰이 첨예화됨에 따라 뚜렷한 이유 없이 무기 연기되면서 취소설이 나돌기도 하는 등 진통이 적지 않았다. 1969년 민관합동 형식으로 시작된 이래 한 번도 무산된 적이 없었던 이 회의가 위기를 넘기고 양국 경제 교류의 최일선에서 오랜 전통을 잇게 됐다는 점이 우선 다행스럽다.

이번 회의의 최고 화두는 소통·협력·교류였다. 회의에 참석한 양국 기업인들이 "한·일 간에 지금과 같은 갈등과 대립이 더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정치·외교적 환경에 관계없이 경제계만이라도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는 것이다. 한국 측 대표인 김윤 한일경제협의장은 공존·공영을 강조했고, 일본 측 대표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은 기업들의 교류 필요성을 내세워 화답했다. 양국 관계정상화를 바라는 기업인들의 염원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양국 경제 교류의 중요성에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상호 의존하는 것은 물론이고 글로벌 분업 체제 속에서 긴밀한 협업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에 지대한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정치인과 관료들이 서로 험담을 늘어놓는 경우에도 경제계는 감정을 배제한 채 이성과 논리적 판단으로 서로의 관계를 이끌어 왔다. 그랬던 것이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반도체소재 품목의 수출규제와 화이트 리스트 제외 등 경제보복에 돌입하면서 상황이 급변한 것이다.

한일경제인회의에 우리 정부에서 국무총리나 주무부처 장관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양국 관계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작년 도쿄 회의에 아베 신조 총리가 참석해 축사를 한 것과 대조적이다. 기업인들이 아무리 대화에 앞장서고 꼬인 실타래를 풀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양국 정부의 관계 회복 의지와 전향적 자세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회의에서 표출된 기업인들의 의사는 두 나라 국민의 밑바닥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양국 정부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해야 한다.

16.0 X 10.7 cm

파이낸셜 뉴스
2019년 09월 26일 (목)
03면 정치

한일 재계 "협력 강화" 한목소리
日 대표 "아베 정부에 지원 요청"

양국 경제인회의 공동성명 발표

"한·일 경제계는 경제전쟁 등 최악으로 치닫는 양국 상황 속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산적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도약을 꾀할 것이다. 서로 기탄없이 의견을 나누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한·일 경제인들은 25일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이틀째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양국 경제인들이 더욱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제3국 한·일 협업의 지속 추진 △한·일 양국의 고용문제·인재개발 등 양국 공통과제 해결 협력 △한·일 경제·인재·문화 교류의 지속·확대 △차세대 네트워크·지방교류 활성화 등 한·일의 우호적 인프라 재구축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성공개최 협력 등이 포함됐다.

양국 300여명의 경제인들은 "최근 한·일 양국의 정치·외교·경제 관계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윈윈이 아니라 루즈루즈한 상황"이라면서 "우리는 그동안 양국 민관 선배들이 쌓아온 호혜적, 양호한 경제관계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공동성명 발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 대표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특별고문)은 "한·일 관계가 어려운 가운데 경제관계마저 무너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양국 경제인들이 이번 경제회의를 열게 됐다"면서 "일본으로 돌아가 이틀 동안의 회의와 공동성명 내용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고 경제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사키 회장은 "앞으로 양국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도래해도 경제·문화적 인적 교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오히려 이런 위기가 서로의 신뢰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한국 대표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은 양국의 정치·외교 입장이 큰 차이를 보이지만 경제협력은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한국은 정치·외교와 경제라는 투트랙 입장이지만 일본은 의견이 다르다"면서 "경제인들이 먼저 윈윈하는 기회를 만든다면 양국 관계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한일경제인회의 토론에서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양국의 경제 비즈니스가 베트남 등 제3국에서 활발히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우광 농심 사외이사 겸 전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한·일은 2011년 이후 제3국에서 삼성엔지니어링·미쓰이화학, 한국전력·스미토모상사 등 여러 차례 협력해왔다"면서 "아세안에서 가장 매력적 국가인 베트남에 진출한 삼성·LG 등과 일본의 부품·소재 기업들이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제3국협력 2.0'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

12.4 X 19.7 cm

디지털타임스
2019년 09월 26일 (목)
01면 종합

"정치·외교가 '경제 걸림돌' 되면 안돼"

韓日경제인 공동성명 발표

경제관계·기업협력 등 우려 속 "교류 끊어져선 안돼" 한목소리 양국 정부의 대화도 강력 요구

"정치·외교 관계가 양국 기업 협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기를 강력히 요망한다." 한·일 경제인들이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틀 간의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일정을 마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203명, 일본 측에서 106명 등 300여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양국 민관의 선배들이 쌓아온 호혜적, 양호한 경제관계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며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경제교류의 유대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의 호혜적인 경제 관계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외교 관계의 복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정치·외교관계가 양국 기업 협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양국 정부의 대화 촉진에 의해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기를 강력히 요망한다"고 덧붙였다.

양국 경제인들은 또 △제3국에서의 한일 협업의 지속적 추진 △양국의 고용 문제, 인재개발 등에 관한 공통과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 △경제·인재·문화 교류의 지속·확대 △차세대 네트워크·지방교류 활성화 등 한일의 우호적 인프라의 재구축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을 향한 협력 등의 과제에 대해 연계해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틀 째 열린 회의에서는 한·일 통상갈등에 따른 어려움과 해법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모리야마 도모유키 한국미쓰이물산 대표는 반일 불매운동이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내 희망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한일관계의 정상화"라고 말했다.

무코야마 히데히코㈜일본종합연구소 수석주임연구원은 한국 경제에서 탈 일본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제3국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제안했다. 이우광 ㈜농심 사외이사는 양국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베트남을 '제3국 협력'의 유력한 후보지로 꼽았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22.9 X 10.3 cm

亞洲經濟
2019년 09월 26일 (목)
02면 종합



전경련이 중국국제다국적기업촉진회와 공동으로 25일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제8차 한·중 CEO 라운드테이블'을 개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둘째부터 장샤오위 중국국제다국적기업촉진회 부회장, 린징전 중국은행 부행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박병석 한중의원외교협의회 회장. [사진=전경련 제공]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 고가 노부유키 노무라 증권 회장. [사진=한일경제협회 제공]

동맹 넘어 공생… 3國 경제교류로 글로벌 위기 넘는다

한·일 경제인회의 "정치는 갈등이지만 경제는 협력해야"
한·중 재계, 라운드테이블서 고부가가치 서비스 등 논의

한·중·일 3개국 경제인들이 향후 경제 동맹 관계를 한층 더 견고히 하기로 뜻을 모았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지속 성장하려면 대립보다는 협력을 통한 '공생관계'를 구축하는 게 효율적인 방향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최근 외교적 문제에 직면한 한·일 양국 경제인은 지금껏 발전시켜 온 경제교류의 유대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재확인했다.

◆한·일 경제인 "정치는 갈등이지만 경제는 협력해야"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24~25일 양일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진행한 후, 미래 협력 강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치·외교적 관계개선의 시작점 마련에 경제계가 앞장서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행보다.

양국 경제인은 △제3국에서의 한·일 협업 지속적 추진 △양국 고용문제 및 인재개발 등 공통과제 해결 △한·일 경제·인재·문화 교류의 지속·확대 △한·일 우호적 인프라 재구축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개최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양국 관계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자칫 양호한 경제관계도 쉽게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일 재계회의단은 "이러한 시기일수록 원점으로 돌아가 보완관계를 극대화할 방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영국의 EU 탈퇴를 비롯해 미·중 통상마찰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양국 협력의 결속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 마련도 촉구했다. 회의단은 "정치·외교관계가 양국 기업 협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각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할 때"라며 "이는 양국 관계를 넘어 아시아의 안정 및 발전에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단에는 경제계 수장뿐만 아니라 정부 인사도 참석했다. 이에 따라 양국 관계에 모처럼 숨통이 트이는 게 아니냐는 기대도 나온다. 일본 측에서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한국에서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자리를 채웠다.

◆한·중 "글로벌 자유무역질서 회복 위해서는 경제동맹 강화해야"

25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글로벌 자유무역질서 회복을 위한 '한·중 경제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허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8차 한·중 CEO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한·중 교역은 수교 당시에 비해 43배나 증가했다"며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 강국인 두 나라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과제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과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등을 제시했다. 한·중 양국 간 프리미엄 소비재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의 경제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허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감소세를 띠고 있는 한국 기업의 대(對)중국 수출 추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중국 수출액은 657억 달러(약 78조8000억원)로 작년 상반기 대비 17% 줄었다. 지난 7월에도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주력 품목 부진으로 16% 감소해 작년 11월부터 9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린징전 중국은행 부행장도 "양국은 가장 중요한 무역 투자 파트너"라며 "앞으로 투자와 통상 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화답했다.

한영훈 기자 han@

28.7 X 22.0 cm

아시아투데이 2019년 09월 26일 (목)
10면 경제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 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우측)과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이 공동성명을 채택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제공=삼양홀딩스

한·일 경제계, 공동성명안 채택 "제3국가 생산·도쿄올림픽 협력"

한·일 경제계가 양국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과 일본 측 단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은 공동성명 채택 후, 폐회식을 끝으로 이틀간의 회의 일정을 마쳤다.

협력 의지를 하나로 모은 양국 경제인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제3국 한일협업의 지속 추진 △한일 양국의 고용문제·인재개발 등 양국 공통과제 해결 △한일 경제·인재·문화 교류의 지속·확대 △차세대 네트워크·지방교류 활성화 등 한일의 우호적 인프라 재구축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성공개최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염재호 SK㈜ 이사회 의장이 좌장을 맡아 '한일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제3국' 베트남에서 에너지·환경 분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 가자는 주장이 나왔다.

패널로 참석한 이우광 농심 사외이사는 "베트남은 한국과 일본의 투자수준이 비슷한 국가이기에 양국 기업이 대등한 관점에서 협력할 수 있다"며 "양국과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연간 13%가량 고도성장하고 있는 등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염 의장은 "국제 분업에 대해 오해하는 분도 많겠지만, 일본과 한국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 제3국가에서 생산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며 "베트남뿐 아니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에서 협력하는 것이 양국에 이득"이라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로 심화된 양국 현황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오쿠다 사토르 아시아대학 아시아연구소 교수는 "분쟁이 장기화되면 일본의 손실 또한 확대되고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기회 상실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 경제인 모두 최근 불거진 수출규제 이슈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며, 대응책 마련에 정부도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윤주 기자 joo0416@

7.5 X 33.1 cm

한일경제협회-일한경제협회 공동성명 채택

"경제·문화교류 확대로 신뢰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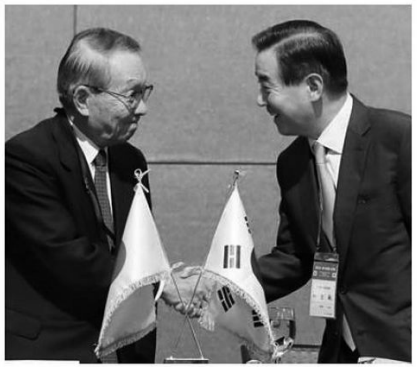
한일경제인회의서 5개안 합의
경제교류 유대 끊겨선 안돼 재확인
양국 "정치·외교복원 시급" 한뜻

한일 양국 경제인들이 격동의 국제정세 속에서도 양국간 보다 밝은 미래와 발전을 위해 협업 등 경제·문화교류 확대, 우호적인 경제인프라구축 등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일경제협회(김윤 회장)와 일한경제협회(사사키 미키오 회장)은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이틀간 진행된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일정을 마쳤다.

양국 경제인들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제3국에서의 한일협업 지속 추진 △한일 양국의 고용문제·인재개발 등 양국 공통과제해결 협력 △한일 경제·인재·문화 교류의 지속·확대 △차세대 네트워크·지방교류 활성화 등 한일의 우호적 인프라의 재구축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성공개최 협력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 경제인은 공통의 사회적 과제에 입각해서 양국 경제계가 서로 협력해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경없는 협업 확대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꾀하기 위해 기탄없는 의견을 나누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경제인은 한일의 호혜적인 경제 관계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외교 관계의 복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관계회복을 위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폐회식에서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오른쪽)과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이 폐회식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또한 양국 경제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치·외교 관계가 양국 기업 협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의 대화 촉진에 의해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기를 강력히 요망했다.

이 같은 합의를 이룬 것은 최근 한일 양국의 갈등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정점에 달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한일 양국 경제인들은 공동성명에서 "지난해 5월 도쿄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기념비적인 제50회 한일경제인회의 이후 국제정세는 크게 요동치고 있다"면서 "유럽에서는 영국의 EU탈퇴(브렉시트) 문제가 장기화하고 있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는 미중 통상마찰이 서플라이 체인의 연관성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또한 중동에서는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한층 고조돼 한일의 에너지 자원 수입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최근 한일 양국의 정치·외교 관계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경제면에서도 문화·스포츠교류 등의 분야에서도 한일관계는 긴장의 연속이다"면서 "우리 한일 양국 경제인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경제교류의 유대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확인했고, 이틀간 양국을 잇는 가교로서 양국 경제계는 미래지향의 원점으로 되돌아가 잠재적 성장력과 보완관계를 극대화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시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중추가 되는 한일 양국의 정치 외교와 비즈니스 환경이 양호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계가 민간의 입장에서 경제·인재·문화 교류를 통해 양국 경제계의 신뢰관계와 양 국민의 원활한 왕래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자고 결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1969년 처음 열린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의 대표적인 민관합동회의로, 한일갈등 속에서도 단 한차례도 중단되지 않고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행사는 한일 양국의 첨예한 갈등으로 한때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됐다가 결국 개최되면서 민간차원의 관계 개선 방안이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올해 행사는 한국 측에서는 김윤 단장 등 203명,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단장 등 106명이 참가했다.

김민준 기자 minjun21@ekn.kr

21.5 X 19.1 cm

브릿지경제
2019년 09월 26일 (목)
03면 종합

재계 '통상 파고' 맞서 고군분투

글로벌 무역전쟁 확전

국내기업 해외투자·교류 확대 등 선제 대응으로 돌파구 찾기 총력

국내 주요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일본발 통상악재에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재계는 이를 극복하고자 국내외에서 민간교류와 투자확대 등 '통상 파고'를 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예상되는 이들 국가의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 등에도 선제적 대응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재계 일각에선 '정부도 기업들이 통상악재에서 벗어나 수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그 일환으로 재계는 현재 통상 분쟁을 겪거나 향후 관세부과 움직임 등이 있는 미국과 중국, 일본을 상대로 한 아웃리치(대외접촉)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24일 한일경제협회가 서울에서 일본 재계 단체와 연 '한일경제인회의'와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국 유력 경제단체와 진행한 '한중 CEO 라운드 테이블'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들은 수출규제로 경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일본에 직접 날아가 현지 재계 및 당국과의 접촉점을 늘리는 한편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수급선 확보 등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이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반도체 소재 관련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을 잇달아 찾는 등 극일(克日)을 위한 '광폭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기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규모 '투자 선물 보따리'를 안기며 '보험'까지 들어놨다. 이 같은 배경에는 미국의 고관세 부과 가능성에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게 되면 교역구조 등이 비슷한 한국의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과도 무관치 않다. 미국과 중국이 '기침'을 하면, 그 틈에 낀 우리나라가 '몸살'을 앓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외부감사 결과를 공시한 2만1213개 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은 32.1%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낮으면 영업을 통해 번 이익으로 이자도 낼 수 없다는 뜻이다.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방증이다.

서울에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재계는 양국의 관계 개선 및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일본 경제계로부터 동의를 이끌어냈다.

한국과 중국 경제계(재계)가 서울에서 회의를 열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로 경제협력을 고도화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전경련은 중국국제다국적기업촉진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8차 한중CEO 라운드 테이블'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고도화와 민간 교류 확대를 이끌어냈다.

앞서 현대자동차그룹은 전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 기간 2조원을 투자해 미국의 유력 자율주행 기업인 앱티브사 합작회사를 세우겠다고 발표했고, SK는 앞으로 미국에 11조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한화는 미국 수소충전소 사업에 1200여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재계 관계자는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제조 대기업들이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매번 얘기하지만 단일 기업으로선 이 같은 통상 리스크를 넘을 수 없는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13.7 X 21.8 cm

브릿지경제
2019년 09월 26일 (목)
23면 사설/칼럼

社說

한일 경제인 만남, 양국 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한일 관계 경색 속에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의 이틀간 일정을 25일 마쳤다.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경제보복 국면을 푸는 고리가 '경제'일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보여준 회동이었다. 공동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보여준 경제인들의 의지가 각별한 의미와 무게로 다가온다. 오랜 세월, 51번째나 회의를 거치는 동안 이처럼 절실한 적은 없었다. 최악의 갈등 속에서 어렵게 성사된 재계 교류가 건설적인 양국 관계 복원의 전환점이 되었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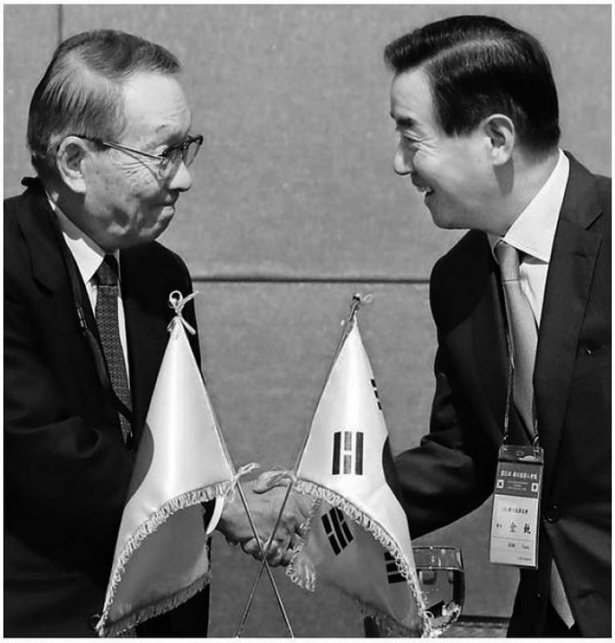
경제적 수단을 통한 제재가 얼마나 국제질서에 어긋나고 시대착오적인지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의 한일 협력'이라는 회의 주제만 갖고도 잘 나타난다. 갈등 해결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그 주체다. 게다가 미국에는 관망만 하는 사안인 '언더 테이블 이슈'라는 점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뚜렷해졌다.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민간 차원의 노력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오래 끌면 동북아 지역의 세력 전이 속에서 양국 모두에 손해다.

물론 한일 경제 갈등을 다룬 세션에서 나온 제안이 반영된다 해도 단시일 내 해법 찾기는 쉽지 않다. 26일 강경화 외무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뉴욕 회담도 그렇지만 구체적인 합의보다 강제징용과 수출규제에 대한 기존 입장만 재확인하려 할 것이다. 바로 이럴 때 한일 재계가 경제 관계가 유지되면 정치외교 관계도 복구된다는 사인을 보냈다. 명분론에 빠진 일본은 그동안 우리가 여러 경로로 내민 대화의 손길을 번번이 외면했다. 우리 정부도 광범위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야 한다. 평행선을 달리는 관계를 푸는 열쇠는 결국 양국 정부의 손에 있다. 경제협력만큼은 평소처럼 지속돼야 한다며 결단을 촉구한 한일 경제인들의 의견 일치가 더 값진 이유다.

한일경제인협회와 일한경제인협회의 이번 회의는 매우 진지하고 유익한 발걸음이었다고 평가된다. 미국·유럽·중국 등 경쟁국들의 반사이익을 막기 위해서도 한일 관계가 시급히 복원돼야 한다. 기조연설에서도 언급됐듯이 양국은 국제 분업의 선순환을 통해 동반성장의 길을 걸어야 할 운명이다. 파국에 이른 갈등을 경제관계를 통해 유지해나가는 시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 한국과 일본 재계가 뿌린 씨앗을 외교채널을 통해 키워 경제전쟁 화해의 싹을 틔워야 할 것이다. 경제협력만큼은 지속돼야 한다는 경제인들의 호소에 양국 정부가 답할 시간이 왔다.

14.1 X 18.0 cm

브릿지경제
2019년 09월 26일 (목)
01면 종합



25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폐회식에서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오른쪽)과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이 폐회식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혜 경제 위해 정치외교 복원" 한일경제인 300여명 공동성명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들이 한일의 호혜적인 경제 관계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외교 관계의 복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양국 경제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치·외교 관계가 양국 기업 협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의 대화 촉진에 의해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기를 촉구했다.

» 3면

300여 명의 한일 양국 경제인들은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폐막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한일의 보다 밝은 미래와 발전을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경제인은 △제3국 한일협업의 지속 추진 △한일 양국의 고용문제·인재개발 등 양국 공통과제해결 협력 △한일 경제·인재·문화 교류의 지속·확대 △차세대 네트워크·지방교류 활성화 등 한일의 우호적 인프라의 재구축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성공개최 협력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 경제인은 공통의 사회적 과제에 입각하여, 양국 경제계가 협력해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경없는 협업 확대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꾀하기 위해 기탄 없는 의견을 나누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한일경제인회의는 한국과 일본의 재계 인사들이 매년 모여 경제 현안과 협력 증진을 논의하는 연례행사 및 경제협의체로, 지난 1969년 시작돼 매해 번갈아가며 50년 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서울과 도쿄에서 열렸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10.1 X 27.7 cm

아시아경제 석간
2019년 09월 25일 (수)
12면 경제

한일 재계 "경제교류 지속" 한목소리

한일경제인회의 모인 300여명 공감…손경식 회장 "현실적 협력방안 모색"

한일경제인회의에 모인 한국과 일본 양국 경제인들이 외교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경제 교류는 지속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 모인 300여명의 한일 경제인은 경제 교류 지속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한일 민간이 개최하는 첫 번째 행사로 양국 정·재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행사를 공동 주관한 한일경제협회의 김윤 회장은 "최근 양국의 갈등과 관계 경색이 안타깝다"며 "상호 입장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화와 협력이 간절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재계가 소통과 교류 협력의 창구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한일 양국이 감정의 응어리를 뛰어넘은 현실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경제인들의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은 "양국 경제인들이 반세기 넘게 구축해 온 양호한 관계를 결코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대화 단절에도 양국 재계가 기업 간 연계를 침착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안심이 된다"고 화답했다. 다만 일본 측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우수연 기자 yesim@

17.6 X 8.3 cm

[부록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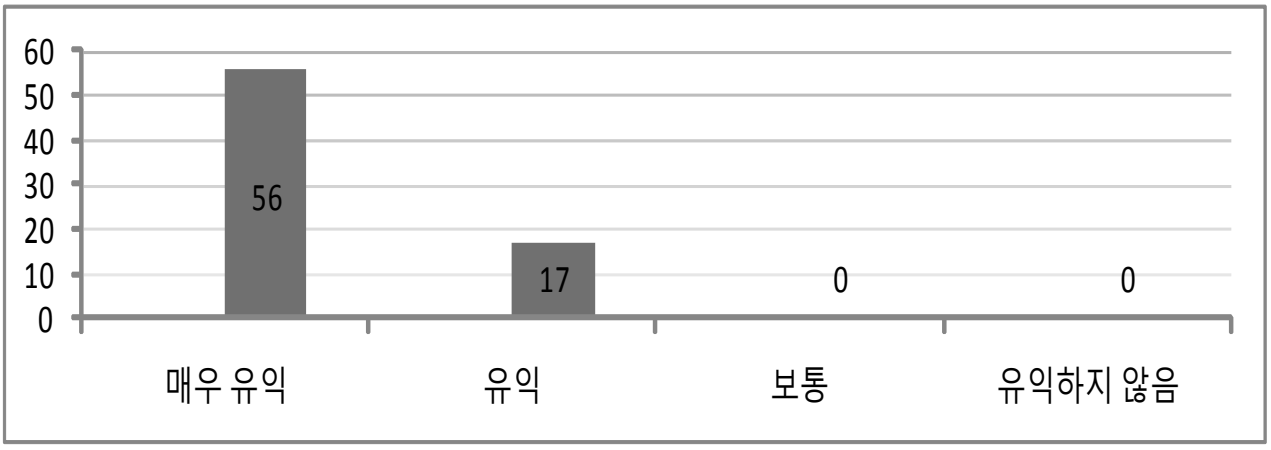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앙케이트 결과

(사)한일경제협회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앙케이트 결과

1. 조사기간 :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기간 (9월 24일~25일)
2. 조사방법 : 현장설문 및 이메일 접수
3. 조사대상 :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참가단원(한국측)

■ 회의 내용에 대한 종합 평가



■ 유익했던 이유

- 어려운 상황에서 취소하지 않고 행사를 개최한 것만으로 의미가 크다. (4)
- 한일갈등 구조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7)
- 냉각된 한일 관계 개선 (갈등해소) 및 한일기업이 협력 확대의 계기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4)
- 한일간의 현안 문제(경제 등)를 깊이 있게 다루고,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회의였다. (5)
- 한일을 둘러싼 환경이 어려운 때에 양국간의 정치문제를 포함하여 다방면의 이슈에 대해 경제계의 솔직하고 현실감 있는 의견교환이 이루져서 매우 유익했으며, 관계 개선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6)
- 공통의 문제 의식을 갖고 양국 경제인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분위기가 되어서 매우 유익하였다.

- 경제 외의 다른 여러사람들의 의견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 그 어느때 보다도 권위있는 발표자, 토론자들로 구성되어 좋았다.
- 최근 악화된 한일관계를 조망해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 및 대안 모색을 논의하고 고민하는 회의가 되어 매우 유익하였다. (2)
- 동종 업종과의 교류 등으로 사업 영역이 넓어졌다.
-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한일간 공동합의사항을 진행해야 된다는 내용의 취지가 실행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 실제 한일 양국의 처해있는 상황과 그에 대한 의견을 토론형식으로 다룰수 있었던 부분이 많은 공감이 되고 유익했다.
- 인재교류의 소강 상태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인식하게 됨.
- 한일관계에 있어서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 전체적으로 회의 내용이 충실했으며, 특히 특별강연과 노무라증권의 강연 내용이 유익했다.
- 한일경제교류 연례행사로서 지속성이 중요하며, 최신 정보 습득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2)
- 한일관계에 대한 일본측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 북한의 개혁, 개방과 한일협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2)
- 일본과 한국의 정치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세미나는 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
- 지속적인 한일경제교류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의 유익하였다.
- 구체적인 현황을 수치로 제시하여 이해하기 쉬웠다. (2)
- 회의내용은 물론, 한국주재일본기업 관계자와의 직접 대화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다.
- 징용공,수출관리,불매운동 등 불편한 내용에 대해서도 양국 경제인이 솔직하게 논의할 수 있었고, 이러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양국의 경제, 문화,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양국 경제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계기되어 매우 유익했다.
- 발표 내용이 한일경제를 비롯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바르고 옳게 이해하면서 대처해 나가는데 매우 유효했다.
- 인적 네트워킹 및 기술정보 입수에 도움이 되었다.
- 일본 경제인들도 한일 간 긴밀한 경제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공유했다.
- 한일 문제를 객관적으로 제3국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였다.

■ 평가의견

- 한일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논의 등을 통해 개선되어 공생공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 발표자들의 발표내용이 매우 전문성 있고 실행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하였다. (3)
- 실질적이고 실행가능한 구체적인 한일협력 방안(액션플랜)을 기대한다. (3)
- 정치인들의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 양국 경제인이 행동을 통해 한일 관계를 회복해야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인식하는 계기다 되었다.
- 한일관계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도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좋았고, 현황 소개 및 문제해결 방안 등 관계개선을 위한 건의(제안)도 적절했다. (2)
- 한일 교류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매우 의미 있어다. (2)
- 어려운 시기에 한일 경제교류협력이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좋았다. (3)
- 경제분야 만큼은 앞으로도 꾸준히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한일 양국의 장점을 서로 공유하고, 관념적인 감정적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액션플랜을 모색할 수 있었다.
- 산업통상만이 아니고, 정치, 경제, 전반적인 문제 등 폭 넓은 논의를 가졌다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
- 한국과 일본경제 협력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에 경제인회의 개최는 매우 유익하였다.
- 내용 모두 절실한 내용을 담고 있어 한일의 경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수가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 접하기 어려운 일본 전문가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좋았으며, SJC에 대해서도 잘 알게되었다.
- 제3국 공동투자(진출) 내용은 매우 흥미로웠으며, 한일간에 베트남 동반 진출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 모두가 이웃나라끼리 윈윈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양국간의 기업인의 역할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 구체적인 방안으로 인적교류의 확대를 통해 양국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갈등관계를 조장하는 듯한 각종 대책에 경제인이 적극 나서야 하겠다.
- 한일간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인들의 노력을 평가하고 싶다.
- 이번 회의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
  (한일공동의 기후변화 대처, KOICA 한일공동 해외 전개, 한일대학교 교환학생 학점상

호인정, 한일공동 중국시장 진출 확대 방안 등)

-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를 정치적 대립 투트렉외교의 파탄, 경제보복이라고 하는 전제를 놓고 정치와 기업은 별개, 기업간 협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는 결론이지만, 수출관리조치의 본질적인 목적은 다루지 못했다.(일측)
- 한일양국이 상호 충분한 소통을 하면서 적절한 수출관리를 운용하고 '악의적인 사람과 단체에 위험한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이다. 이 본질적인 이행과 달성이야말로 정부, 산업, 기업이 지금 협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일측)
- 한일간 상대방 요구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대화를 통해 이해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하겠다.
- 한국 학생의 일본기업 취업, 한일기업 협력사업 등 많은 일들을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
- 한일관계가 과거지사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 미국이 일본에 원폭을 투하하여 18만 명이 죽었고, 수십 만 명이 방사능 등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경제적 문화적 손실이 천문학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적대시하지 않아 세계 대국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 양국 정부의 정치가들의 불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경제인들은 교류협력에 생각의 차이가 없이 협력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는데 향후 한일 간 경제협력에 희망을 볼 수 있었다.
- 한일공동성명의 내용이 한일양국 정부 및 주요기관에 전달되어,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기해해 보지만, 실제 반영도는 미미한 것 같다.
- 발표자들이 자료정리에 성실성을 보여주어 참고가 되었으며, 특히 일본측 발표자의 발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좋았다.
- 장제국 총장의 발표내용은 매우 유익했다. 평소 생각했던 내용이였다.

■ 건의사항

- 인재양성 파견 후, 2~3년 정도는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과거의 경험보다는 미래의 혁신적인 제안도 필요하다.
-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이다(논의 의제로 제안)
- 고기능 보유 실업자 및 고학력 청년실업자 일자리 창출확대를 기대한다.
- 한일간 대립이 경제분야에서 협력의 모멘텀을 살려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한중일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와 한반도에 환경개선책으로 미세먼지 발생방지에 대한 제1순위 정책이 필요하다.
-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자동화 무인기 장비기술강화 역점을 두어야겠다.
- 향후 양국 청소년(초중학생)의 대대적인 인적교류를 통하여 우호를 돈독히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 한일경제인협회에서 이를 주관하여 시행한다면 큰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확신한다. 왜냐하면 동·서독 초중학생 20여만 명의 교류를 통하여 동·서독 통일의 전초가 되었음이 동·서독통일백서에서 나타나 있다.
- 양국의 중소기업이 협업하여 개발도상국에 대응하는 문제도 제기되었으면 좋겠다.
- 바이어상담으로 비즈니스가 연결되면 가장 좋겠다.
- 언론을 통해 회의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해당기관과 정부에 건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공동성명서가 전 국민들에게 알려지길 기대합니다.
- 양국정부에 대한 건의를 보다 강력히 할 수도 있으나 양국 기업인의 부담이 클 경우 오히려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양국 정부, 정치인에 대한 질타와 격려를 전담 하는 기구나 세력 확장 방법(지원 및 육성 사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다.
- 2일간이라고 하는 회의 기간도 좋았고, 프로그램 시간배분도 적절했다